



오늘도
무사GO

TS는 365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갑니다.

TS 한국교통안전공단

매거진 구독/취소, 주소 변경 신청 T. 02-2090-6752

TS MAGAZINE

2025 SUMMER Vol.83

TS 한국교통안전공단

2025 SUMMER

TS
MAGAZINE

Vol.
83



오늘도
무사GO

숨 가쁜 일상을 잠시 벗어나
바다로, 산으로, 강으로 향하는 휴식의 시간.
햇살은 눈부시게 따사롭고
마음은 한층 더 가벼워지는 이 계절,
여행은 설렘으로 시작하지만
진짜 행복은 ‘안전하게 도착하는 순간’에 완성됩니다.

잠깐의 방심이 소중한 여름을 멀어지게 할 수 있으니,
출발선부터 ‘안전’을 살뜰히 챙겨서
돌아올 때는 한가득 추억과 함께
함박웃음을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페셜 채널 : Theme_혁신



08 클로즈업

TS, 미래차 시대
자동차검사 혁신 가속페달 밟다

12 인사이드

대한민국 최초 TS 모빌리티지원센터,
이동 혁신과 활성화를 선도하다
- 조성진 TS 모빌리티지원센터 정책지원처 부장

16 TS 스포트

세계 최고 수준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K-City

20 리포트

첨단 모빌리티 현황조사는
미래 교통 혁신의 첫걸음
TS, 첨단 모빌리티 현황조사 및 발전 방향 모색

#뉴스 채널



26 K-교통문화

충북 영동군
전국 군 단위 교통문화지수 1위!

30 교통안전 핫 클릭

장마철, 수막현상과 침수 도로
이렇게 대비하세요!

32 TS 이슈

전기차, 전용진로에서 안전하게 검사받으세요!
TS 부산본부, 자동차검사 중 전기차 화재 대비
합동훈련으로 대응력 강화

36 TS 뉴스룸

#플레이 채널



42 TS 커피 충전소

시원한 커피 한 잔으로
나른한 오후를 활기차게 시동!
- TS 성안검사소

48 TS 초대석

시니어의 눈으로,
모두의 안전을 그리다
- 장은조·조원표 TS 시니어 교통안전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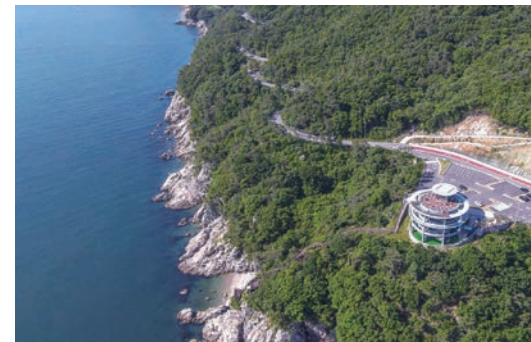
52 원데이 클래스

내 결의 생기 어린 작은 숲,
식물 테라리움 가드닝

56 밸런스 게임

당신의 업무 소통 방식은?
“톡 하나면 충분해!” 메신저 채팅파 vs.
“얼굴을 봐야 소통이 돼” 직접 대면파

#컬처 채널



60 On The Travel

하늘 길과 바닷길을 따라가는
남해안 절경 '사천·남해'
비행기 타고 떠나는 남해도 여행

64 컬처 드라이브

무더위 피하는 도심 속 밤 문화 기행

68 명화 속 교통 이야기

김홍도의 <풍속화첩 : 나룻배>
모두를 평등하게 대한 '나룻배'

70 TS 안전 스쿨

교통안전 Why? How?

72 TS 스토리 톨

휴가철, 비행기 탑승 전 이것 체크하셨나요?
보조배터리(드론배터리 포함) 기내 반입 가이드

74 독자와 수다

‘이런 게 혁신이지!’
내가 뽑은 생활 속 교통안전 꿀템은?

77 상반기 만족도 조사

78 TS Quiz Z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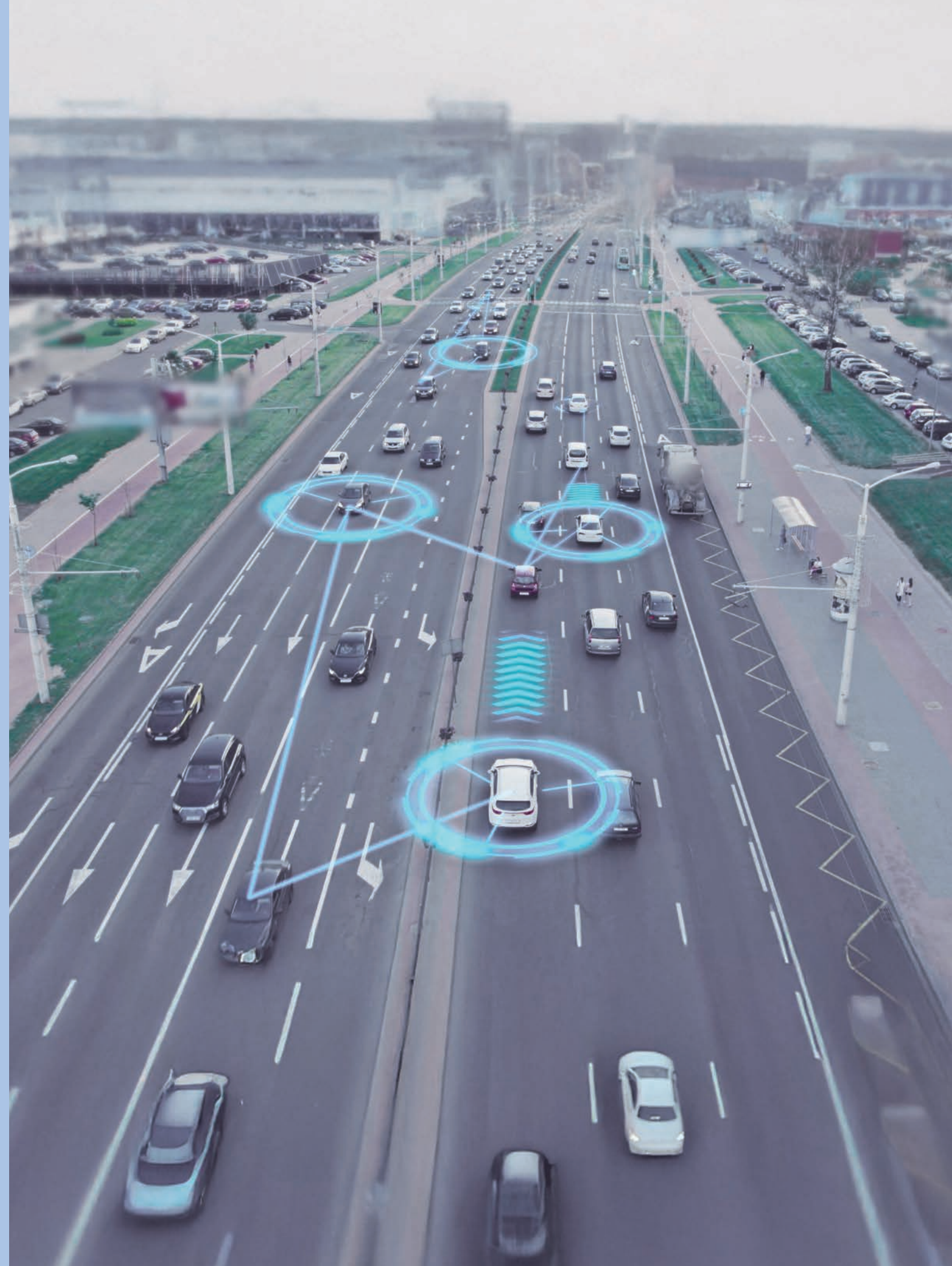
SPECIAL CHANNEL



여름호 Theme _ 혁신

TS는 급변하는 모빌리티 환경 속에서, 교통안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미래차 시대를 대비한 자동차검사 체계 전환, 친환경 모빌리티의 안전기준 정립, 자율주행·스마트 교통 등 미래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현장 실태조사와 실증 실험까지,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혁신'이라는 TS의 핵심가치가 있습니다. 이번 호 스페셜 채널에서는 보다 똑똑하고 안전한 교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TS의 혁신적인 도전과 해법을 집중 조명해 봅니다.

TS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열어갑니다.
TS의 핵심가치로 그리는 교통안전 로드맵 이야기



TS, 미래차 시대

자동차검사 혁신 가속페달 밟다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가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지금,
'안전'은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자동차검사 혁신에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자동차검사는
지속 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열고,
우리의 삶과 미래를 바꾸는
핵심 열쇠이기 때문이다.

글_편집실

Safety



친환경자동차 전용 검사진로 시연회



테슬라 차량 전자 진단이 가능한 전용 케이블로 자동차검사 중인 모습

친환경자동차 전용 검사진로 구축으로 미래차 시대 '안전'과 '환경' 모두 잡는다

미래차 시대의 도래는 자동차검사 제도에도 혁신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2017년 12월 34만 대였던 친환경자동차는
2024년 9월 256만 대를 돌파하며 6배 이상 급증했다. 빠르
게 확산하는 미래차 시대에 기존 검사 방식만으로는 '안전'과
'환경' 두 마리 토끼를 잡기엔 한계가 많다.

이에 TS는 미래차 중심 검사 패러다임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
다. 전기차 및 첨단차의 보급 확대에 따라 국민이 자동차의 안
전을 신뢰하고 운전할 수 있도록 검사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TS는 2023년 12월부터 서울 성산검사소를 시작으로 구로검
사소, 해운대검사소에 친환경자동차 전용 검사진로를 구축하
고, 점진적으로 전국 검사소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친환경
자동차 전용 검사진로에서는 배터리 전압, 온도, SOC(충전 상
태), SOH(배터리 건강도), 충전 이력 등 성능과 고전압 부품의
절연 상태와 같은 고전원 전기장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진
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부 스캔 장비와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배터리 상태와 발열 위험까지 운전자가 직접 확인 가능
하다. 또한, TS는 해운대검사소에서 6월부터 자체 개발한 자
동 절연저항 검사장비, 저소음차 경고음 검사장비, 배터리 검
사장비에 대한 실증 연구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전기차 안전
성 확보를 위한 최첨단 검사장비의 도입 가능성을 검증한다.
이와 함께 TS는 공공 검사 체계뿐 아니라 민간 검사소의 전기
차 검사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최근에는 전국 약 1,100개
민간 검사소에 테슬라 차량 전자 진단이 가능한 전용 케이블
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이 케이블은 TS 첨단자동차검사연구
센터가 개발한 KADIS(Korea Automobile Diagnosis Integrated
System) 기반 기술로, 테슬라 차량의 배터리 및 첨단 전자장
치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다.

TS의 이러한 혁신적 검사 시스템 구축은 단순한 기술 업그레
이드를 넘어, 선제적으로 전기차 화재 사고와 같은 잠재적 위
험을 사전에 차단해 촘촘한 운행 안전 관리로 이어진다. 자동
차검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
안전망으로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준비하는 핵심 요소다.

국제 협력으로 'K-자동차검사'의 위상을 드높인다

자동차 기술이 국경을 넘나들 듯, 검사 기술 역시 국제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TS는 글로벌 검사 기준 강화와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K-자동차검사'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TS는 지난 4월, 자율주행차·전기차·소프트웨어 기반 차량(SDV)의 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제 기술 포럼을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독일 첨단자동차검사연구소(FSD) CEO가 참석해 독일의 검사 기술 개발 동향을 공유했으며, 양 기관은 국제자동차검사위원회(CITA)를 중심으로 자율차와 SDV 등 미래차의 검사 기준 마련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인천에서 CITA 아시아-오스트랄라시아 지역 초청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를 주제로 열린 이 행사에는 일본 국토교통성, 베트남 자동차등록청, 몽골 도로교통부 등 40여 명의 해외 전문가들이 참석해 각국의 정책과 기술을 공유했다. TS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관리, 자율차 검사 시스템 등 주요 R&D 성과를 공유하고, 동탄검사소에서 ADAS 등 첨단 검사 기술을 직접 시연했다.

이 밖에도 TS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기술 협력은 물론, UN 산하 차량기준 조화기구(WP.29)에서 논의되는 미래차 검사 기준에 대한 연구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자율차 진단 데이터를 활용한 원격 진단 기술 개발 등 검사 체계 혁신도 함께 추진 중이다.

TS는 CITA 아시아 의장국으로서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글로벌 미래 모빌리티 안전을 이끄는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국제 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 TS의 자동차검사 모습

2 TS가 지난 4월 개최한 자율주행차·전기차·소프트웨어 기반 차량(SDV)의 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제 기술 포럼



직원 역량 강화와 서비스 혁신으로 더 신뢰받는 검사 체계 구현한다

검사 제도의 혁신은 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검사소 현장 직원의 전문성과 서비스 역시 중요하다. TS는 전국 검사소 직원 대상 검사 역량 강화와 서비스 혁신을 통해 국민이 만족하는 검사 품질과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우선, 전국 공단 및 민간 검사소를 대상으로 '결함발견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결함 차량을 사전 고지 없이 검사소에 투입해 검사 결과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검사 역량과 검사 과정을 점검한다. 이를 통해 공단은 검사 역량이 부족한 검사소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1:1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민간 검사소의 검사 품질도 함께 끌어올리고 있다. 검사소 현장의 안전을 위한 스마트 기술 도입도 주목할 만하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이 시스템은 동탄, 성남검사소를 시작으로 전국 59개 검사소에 순차적으로 도입 중이며, 향후 민간 검사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TS는 2023년 11월부터 세계 최초 비대면 검사 서비스인 '자동차 온라인 재검사'를 시행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부적합 항목 중 검사원의 단순 육안 확인으로 재검사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 온라인으로 자동차 전체 사진 및 등록번호판이 포함된 부적합 증빙 사진을 등록해 재검사를 신청하는 이 제도는, 올해 1월부터 타이어 마모, 창유리 훼손, 후부반사판 상태 등의 재검사 항목을 추가해 수검 편의를 높였다. TS는 온라인 재검사를 통해 연간 약 30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TS는 국민 편의를 위한 서비스 개선에도 힘을 쏟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자동차검사 가능 기간이 검사일 전후 각각 31일(총 63일)에서 검사일 전 90일~후 31일(총 122일)로 대폭 늘어나 여유 있게 검사 일정을 잡을 수 있도록 수검 부담을 한층 줄였다. 게다가 지난 1월 8일부터는 카카오톡 기반의 차세대 전자문서 안내 서비스를 도입해, 검사 대상자에게 4차례에 걸쳐 검사 시기를 안내하고 있다. 이 전자문서는 언제든지 재확인 가능하고, 종이 우편을 줄여 탄소중립에도 기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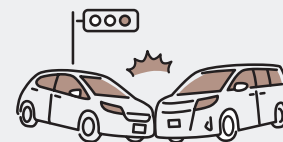
자동차검사는 숫자로도 증명된 기적의 기술이다. TS가 지난해 7월 발표한 '2023년 자동차검사현황 통계'에 따르면, 자동차검사로 연간 교통사고 4만 4,000여 건, 환경오염물질 1만 5,000여 톤 저감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이뤄냈다. 미래차 시대를 맞아 자동차검사 제도의 혁신이 본격화되는 지금, 그 기대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 중심엔, 국민 '안전'을 향한 TS의 멈추지 않는 혁신이 있다.



'자동차 온라인 재검사' 포스터

◆ 자동차검사로 얻는 사회적 편익

교통사고 감소



4만 4,398건

대기오염물질 저감량



1만 5,571톤

자료 : TS 2023년 자동차검사현황 통계

모빌리티와 첨단 기술을 결합하고, 교통수단 간 연계성 강화로 혁신적인 이동 증진 구현에 나선다. 대한민국 최초로 지정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지원센터가 관련 통합 데이터 구축, 맞춤형 지원, 대내외 거버넌스 형성, 실효성 있는 규제 실증특례 제도 운영, 모빌리티 친화적 도시로의 전환 등을 추진하는 배경이다. 조성진 정책지원처 부장과 함께 이러한 주도적 역할, 그리고 구슬땀 어린 노력에 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글 오민영 사진 장병국

대한민국 최초 TS 모빌리티지원센터, 이동 혁신과 활성화를 선도하다

조성진 TS 모빌리티지원센터 정책지원처 부장



조성진 부장님은 TS의 중장기 경영 비전인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정책 지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2005년 8월 TS에 입사해 어느새 20년이 되었네요. 앞서 본사 연구부와 교통안전정책실에서 10년간 근무했고, 자동차 안전연구원 연구기획실, 서울본부 안전관리처, 비서실과 미래전략실 등에 8년간 몸담았습니다.

지난 2023년 10월, 공단에선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모빌리티혁신법』) 제7조에 따라 우리나라 최초의 모빌리티 지원센터로 지정받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2024년 2월 이곳 센터의 정책지원처에 합류해 2년 동안 활동하고 있죠.

정책지원처는 모빌리티 맞춤형 지원과 혁신 거버넌스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첨단 모빌리티·대중교통 현황과 같이 관련 국가 정책 수립 기반으로 작용하는 각종 데이터와 정보를 수집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세우고 올바르게 시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민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위상과 성과를 드높이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선 올해를 기점으로 모빌리티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혁신 전략을 모색하는 모빌리티 혁신 포럼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세계적인 행사인 글로벌 모빌리티 컨퍼런스를 해마다 선보이며 폭넓은 네트워크 형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TS 모빌리티지원센터는 정책지원처와 함께 규제혁신처, 실증사업처 등 3개 부서가 전문적으로 분담하고 있죠. 여기서 정책지원처는 모빌리티 혁신 정책과 대내외 거버넌스 확립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모빌리티지원센터인 이곳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칠 수 있었던 비결은 센터 내 정책지원처와 다른 부서 간 유기적 협력 체계가 공고한 덕분이라고요.

TS 모빌리티지원센터는 앞서 소개한 『모빌리티혁신법』의 8개 법정 사업을 중심으로 모빌리티 혁신에 관한 효율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업무는 우리 정책지원처와 함께 규제혁신처, 실증사업처 등 3개 부서가 전문적으로 분담하고 있죠. 거듭 강조하다시피, 정책지원처는 모빌리티 혁신 정책과 대내외 거버넌스 확립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혁신처에선 국내 모빌리티 산업과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찾아내 해소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모빌리티 규제 실증특례 제도(이하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시행하고 있어요. 해당 제도는 일정한 조건에서 모빌리티 영역의 새로운 수단과 기반 시설, 기술·서비스에 관한 현행 규제를 면제 혹은 유예해 신속한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참고로, 민간기업 맞춤형 실증 특례를 빠르게 승인한 결과, 평균 소요 시간을 24일이나 단축했습니다.

실증사업처는 모빌리티 친화 도시와 공간으로의 전환 촉진에 있어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광명·시흥과 성남, 경북 의성과 대구 등 4개 곳을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지정해 운영했으며, 인프라 기준 마련과 개선에 앞장서 왔습니다.

물론 업무 영역은 나뉘어 있으나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기에, 센터가 구현하고 있는 결실은 어느 한 부서의 공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함께여서 더욱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관계라고 자부합니다.

TS가 특히, 센터 지정에 있어 두각을 드러낸 배경이 있습니다.

TS는 차량, 철도, 항공 등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주요 모빌리티 수단·서비스에 관한 인프라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자동차 안전기준과 검사 등 안전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통합정보시스템, 자동차 운행 기록 등 각종 교통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죠. 더불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신림선, 광주2호선 등의 설계안전진단을 비롯한 철도안전관리를 수행해 왔습니다. 나아가, 도심항공교통(UAM)이나 드론에 관한 안전기준과 정책을 지원합니다.

덧붙여 전문적 역량을 갖춘 공단 내 임직원이 모빌리티지원센터 지정과 업무 수행에 있어 적극적으로 단합하기에 오늘과 같은 입지를 닦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내 모빌리티 혁신과 활성화에 있어서 화두로 떠오른 이슈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모빌리티 혁신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줄여야 할 격차가 세 가지 있습니다. 우선 도시와 농촌 간 모빌리티 격차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 9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에선 국내 첫 심야 자율주행 택시 운행이 이뤄졌습니다. 반면 여전히 일부 농촌 지역 소도시에선 하루에 몇 대 다니지 않는 버스 시간에 따라 일정을 맞춰야 합니다.

세대 간 받아들이는 속도가 다른 디지털 전환(DX) 격차 또한 중요합니다. 젊은 층과 달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쉽지 않은 어르신 세대 가운데는 KTX 티켓을 발권하고자 일부러 역까지 나오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격차가 존재합니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대기업 등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모빌리티 신기술을 완성해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합니다.

모빌리티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있어서는 국가적 지원과 산업경쟁력 확보가 기본입니다. 더 나아가 이 세 가지 격차를 해소해야 비로소 온전한 활성화가 가능해진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TS 모빌리티지원센터는 국토교통부와 더불어 실효성 있는 지원 확대와 규제 혁신에 심혈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차세대 모빌리티 발전을 이끄는 과정에서 때론 예기치 못한 난관과 마주한 상황이 있었을 듯합니다.

우리 공단은 국토부와 함께 2023년부터 매년 글로벌 모빌리티 컨퍼런스를 개최해 왔습니다. 차세대 모빌리티 시대를 앞두고 국내외 정책과 주요 혁신 과제 공유, 그리고 관련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뜻깊은 행사입니다. 아울러 국제교통포럼(OECD ITF)과 전 세계 전문가, 각국 정부 관계자, 비즈니스 리더 등이 모여 모빌리티 혁신 촉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지난해엔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열렸습니다.

다만 행사를 약 일주일 앞두고 예기치 못한 국가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면서 안전상 우려를 나타낸 참석자가 적지 않았죠. 그러나 공공·민간과 지역·글로벌의 경계를 넘어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자 하는 의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분이 더욱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무려 600명이 대거 참석해 완성도 높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첨단 모빌리티 도입과 폭넓은 기반 시설 지원, 전국적인 이동 편의성 향상, 차세대 모빌리티 수단 홍보 등에 노력을 기울이는 TS에 응원의 메시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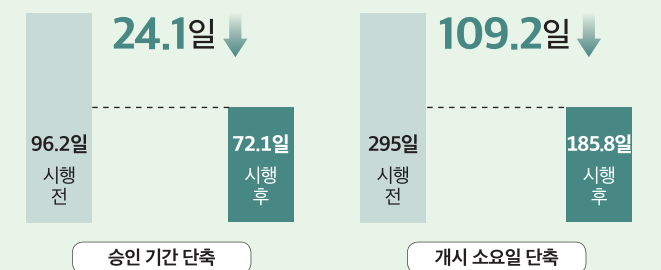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우리는 모빌리티를 '이동 수단'으로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개념을 더욱 확대해 보면 앞으로 나아가고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단지 신체의 이동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과 사고가 발전하는 유연성을 의미하죠. 반대로 임모빌리티(Immobility), 즉 부동성은 움직이지 못하거나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모빌리티 혁신을 선도하는 TS의 모든 구성원이 그 뜻처럼 부서와 세대, 업무, 직급과 직렬, 지역 등을 막론하고 유연하게 소통하며 보람 있는 성과를 축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공단의 이름으로 여러 분과 함께 힘차게 달리겠습니다.

TS가 국토부와 공동으로 개최한 2024 글로벌 모빌리티 컨퍼런스



◆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특례 승인 기간 및 개시 소요일 단축



*모두 타 규제샌드박스 대비 수치임

세계 최고 수준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K-City

2018년 12월 경기도 화성에 문을 연 K-City는 자율주행 기술 실증부터 기업 지원, 공공 판로 연계, 글로벌 협력까지 아우르는, 대한민국 미래 모빌리티 혁신의 심장부다. 올해 자율주차빌딩, 시뮬레이션 장비 등 3단계 고도화 사업을 완료해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인프라로 발돋움한다.

글 편집실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K-City는 총면적 36만㎡, 도로 연장 5.5km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자율주행 실험도시다.

- 1 K-City 조감도
- 2 K-City에서 시험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

자율주행 기술의 첫 시험무대, K-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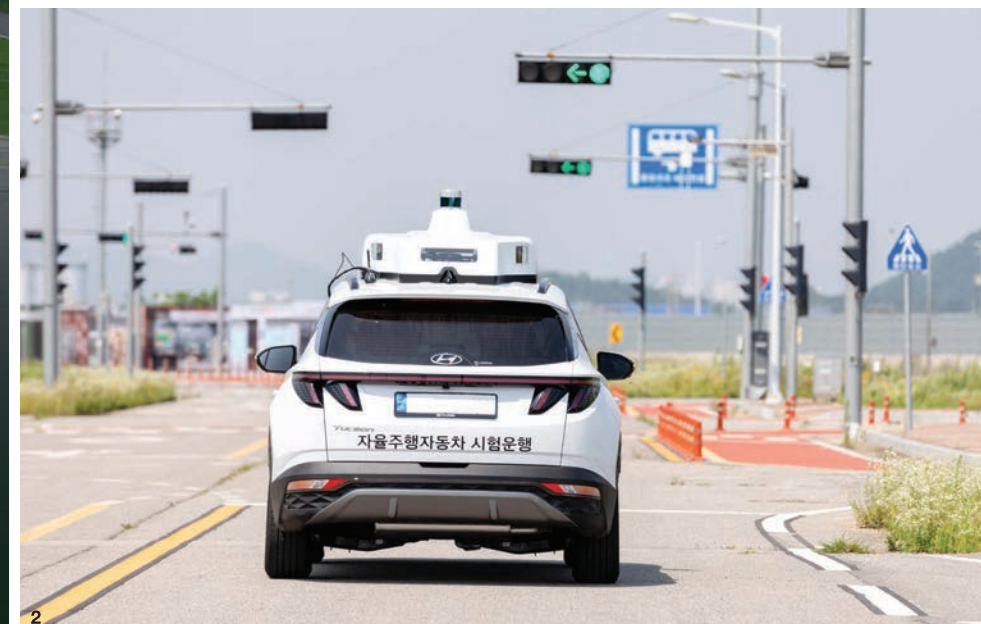
자율주행 기술이 실제 도로를 달리기 전,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 있다. 바로 자율주행 실험도시 'K-City'다.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K-City는 총면적 36만㎡, 도로 연장 5.5km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자율주행 실험도시다.

이곳은 자율주행차가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도로 환경을 동일하게 재현해, 실제 도심 주행과 유사한 조건에서 기술을 테스트하고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자동차전용도로, 도심, 교외도로, 자율주차구역 등 실제 도로 환경을 정밀하게 구현한 5개 테스트 구역에서 5G, LTE, RSU 등 통신 인프라를 바탕으로 V2X 기술 실험도 가능해 자율주행 시대의 핵심 거점으로 주목받는다.

3단계 고도화 사업으로, 진화에 진화를 거듭한 K-City

K-City가 지금의 세계적인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로 자리 잡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K-City는 3단계 고도화 과정을 거치며, 단순 실험장을 넘어 마치 실제 도시처럼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최첨단 공간으로 진화했다.





3 K-City와 영국 MIRA간 자율주행 기술력 향상 업무협약

4 인공 강우, 안개 등 악천후 상황을 재현한 기상환경재현시설

5 올해 K-City에서 성능 검증이 이뤄지는 레벨4 무인 자율주행 셔틀

6 K-City에서 자율주행 기술 테스트 모습



고도화 1단계(2017~2018년)에서는 자율주행차가 실제 주행 중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자동차전용도로, 도심부, 교외도로 등 5개 도로 환경과 횡단보도, 신호등, 통게이트, 회전교차로, 자율주차장 등 실제 도로를 모사한 35종의 평가 시설이 이 시기에 조성됐다. 또한 5G, LTE, RSU 등 통신 인프라가 구축돼 차량과 차량(V2V), 차량과 인프라(V2I) 간 실시간 통신이 가능한 V2X 기술 실험까지 가능해졌다.

2단계(2019~2022년)에서는 테스트 환경이 한층 정밀하고 다양하게 확장됐다. 기상환경재현시설이 도입돼 인공 강우, 안개 등 악천후 상황을 재현하고, 다양한 교통상황을 구현하는 로봇 시스템을 통해 레벨4 자율주행 기술개발 지원에 한 발 더 다가섰다. 통신음영(GPS 차단) 구간도 마련해 GPS 의존도가 높은 자율주행 시스템의 극한 상황 대응력까지 점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입주 기업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미래혁신센터(입주형 편의시설)도 조성해 테스트 인프라뿐만 아니라 연구 생태계 기반도 함께 강화했다.

3단계(2023~2025년)에서는 K-City를 '현실 같은 테스트 환경'을 구현한 최첨단 실험장으로 탈바꿈시켰다. 입체교차로, 복잡한 골목길, 자율주차빌딩 등 실제 도시 환경을 정밀하게 모사한 구역이 새롭게 구축됐으며, 다양한 시나리오 기반으로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성능 검증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실제 보행자와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통합객체 기반 환경 및 가상 환경에서 더욱 다양한 상황을 구현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통제인 등이 구축돼 한층 더 진화한 자율주행 기술개발 및 검증 기능을 지원한다.

기술 실증에서 기업 지원·공공 조달·글로벌 협력까지, 자율주행 실증 종합 생태계 구축

K-City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자와 기업에 단순한 시험 공간을 넘어, 기술 상용화를 향한 성장과 도약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9년부터 국토교통부의 지원 아래, 중소·스타트업에 테스트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해 실제 기술 구현의 진입 장벽을 낮췄다. 그 결실로, K-City에서는 2024년 한 해만 7,951시간의 실증 테스트가 이뤄져, 약 26억 8,000만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뒀다. 지금까지 5년간 누적 절감액은 약 103억 4,000만 원(2만 8,815시간 활용)에 달한다. K-City 무상 개방은 레벨4 상용화를 목표로 2027년까지 이뤄진다.

이와 함께 K-City는 기술 실증을 넘어 기업 지원, 공공 조달 연계까지 아우르는 'K-테스트베드' 모델로 진화하고 있다. 입주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정비고 및 사무공간이 필요한 자율주행 기업에게 미래혁신센터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2024년에는 10개 기업이 입주했고, 올해는 12개 기업이 들어올 예정이다. 이를 통한 입주 기업 간 협업 시너지도 기대를 모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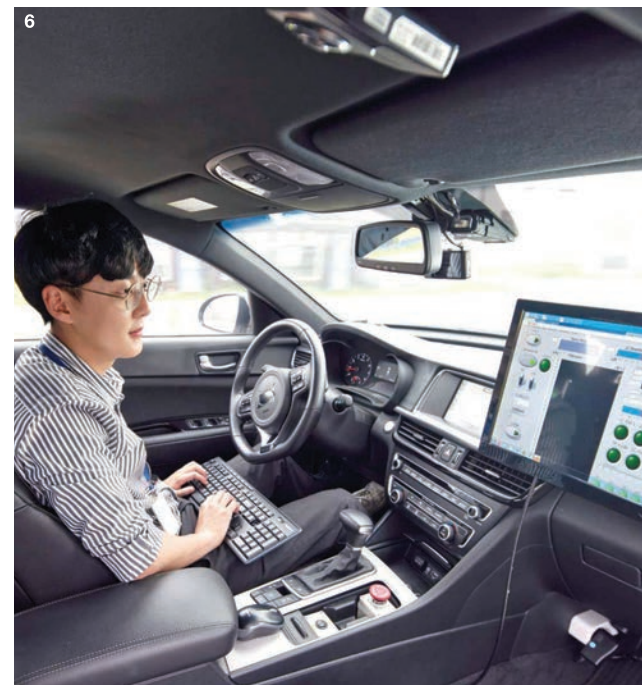
특히 K-City에서 검증된 기술은 기획재정부의 K-테스트베드 사업과 연계해 신기술 성능확인서 발급, 기술마켓 등록,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지원을 통한 공공 판로 진출로 이어지는 시장 진입 사다리 역할을 한다.

K-City는 3단계 고도화 과정을 거치며, 단순 실험장을 넘어 마치 실제 도시처럼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최첨단 공간으로 진화했다.

실제 사례로, TS는 올해 1월 (주)인투스페이스와 공동으로 기상 환경재현시설을 통해 터널 내 GPS 위치 제공 시스템을 개발하고 성능평가 및 기술마켓 등록을 완료했다.

TS는 K-City를 기반으로 글로벌 기술 연계와 협력도 한층 강화하고 있다. 2024년 7월에는 독일연방도로청과 공동으로 제7차 교통안전 심포지엄을 개최해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한 글로벌 트렌드, 정책, 시험 기준을 공유하고 기술 개발 및 평가 체계에 대한 한·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밖에도 미국(M-City), 영국(MIRA), 네덜란드(TNO) 등과 국제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내 새싹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성장도 지원한다. TS는 이를 통해 국제 표준 수립은 물론 국내 기술 글로벌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

K-City는 국내 자율주행 기술이 세계로, 미래로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는 전진기지 역할을 한다. 끊임없는 기술 고도화와 기업 지원, 공공 조달 연계, 글로벌 협력까지 아우르는 종합 실증 생태계를 구축하며, 대한민국이 자율주행 산업의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데 핵심적인 발판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TS는 K-City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혁신 플랫폼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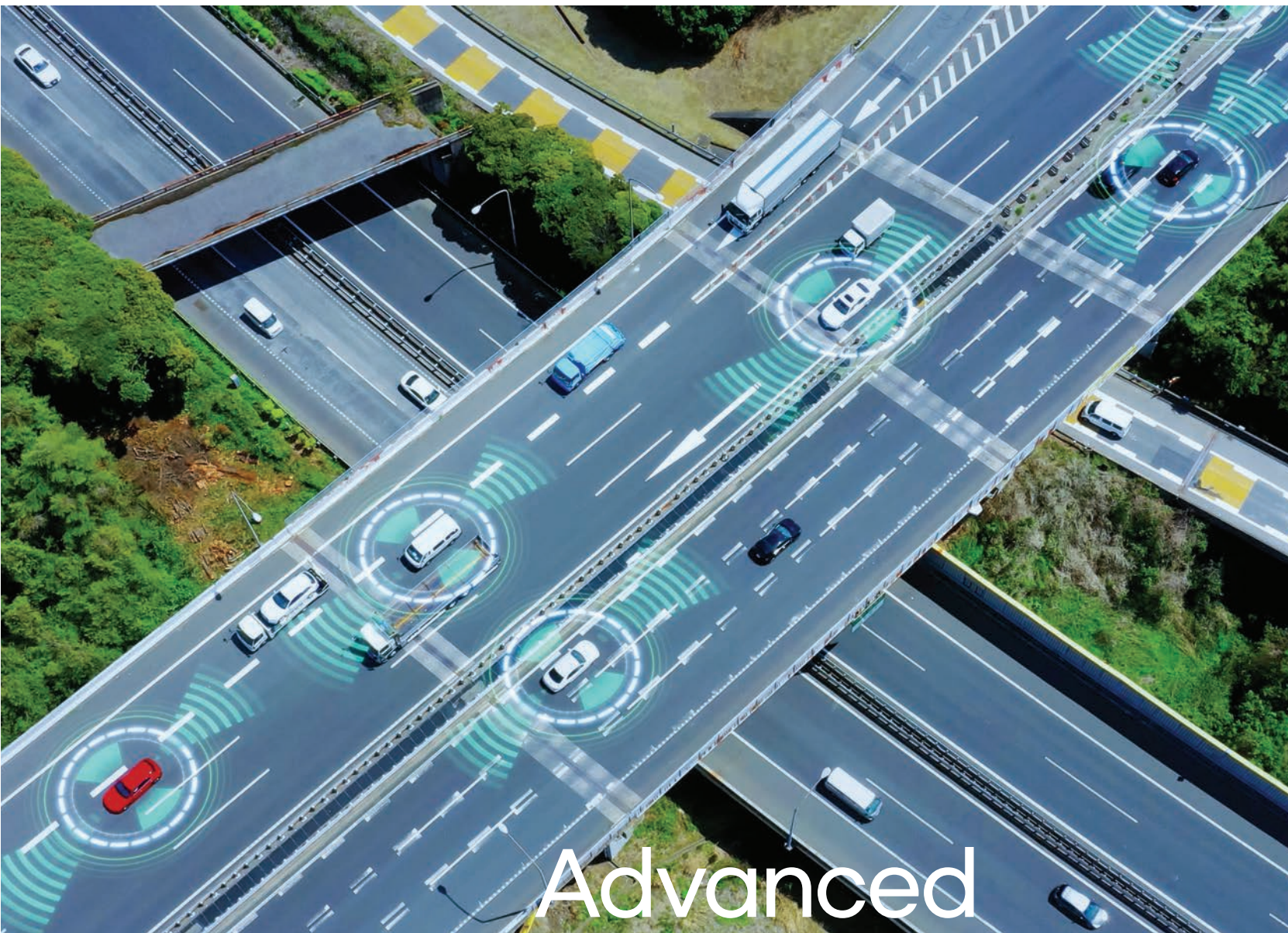


첨단 모빌리티 현황조사는 미래 교통 혁신의 첫걸음

TS, 첨단 모빌리티 현황조사 및 발전 방향 모색

정확한 조사가 정확한 정책을 만든다. 첨단 모빌리티의 빠른 확산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진단하는 것이 선결 과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첨단 모빌리티 현황조사를 실시해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과 교통 서비스 혁신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

정리_ 편집실 자료_ 모빌리티지원센터 정책지원처



Advanced

Mobility

첨단 모빌리티

현황조사 사업 배경과 목적

도심을 누비는 자율주행 셔틀, 앱으로 부르면 달려 오는 AI 호출버스, 정류장이 아닌 플랫폼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교통 서비스들이 전국 곳곳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첨단 모빌리티의 고속 성장에 발맞춰, 현장의 정확한 실태 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했다.

이에 TS는 2023년 10월 '모빌리티지원센터'를 공식 출범시키고, 첨단 모빌리티 서비스의 전국적인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현황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모빌리티지원센터는 △모빌리티 규제실증 특례 운영, △첨단 모빌리티 현황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이하 현황조사), △지자체 개선계획 수립·평가·지원 등 정책과 실증, 실행을 잇는 국가 교통 혁신의 중추적 역할을 맡는다.

특히 현황조사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모빌리티혁신법』)에 근거해 매년 전국 16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공공과 민간 영역의 다양한 첨단 모빌리티 서비스는 물론, 수단·기반시설에 대한 현황조사와 기초 통계 분석을 수행하고, 만족도 조사를 병행해 이용자 관점에서 서비스의 효과성까지 입체적으로 점검한다.

이처럼 현황조사의 궁극적 목적은 단순한 실태 파악에 그치지 않고, 첨단 모빌리티의 현재를 정확히 진단해 이를 기반으로 정책 기획, 제도 정비, 공공 플랫폼 설계,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실행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현황조사, 정의 설정부터

만족도 조사까지 입체적 접근

현황조사의 시작은 명확한 기준에 근거한 정의 설정에서 출발한다. 어떤 교통 서비스를 '첨단모빌리티'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조사 범위, 방식, 그리고 분석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TS는 『모빌리티혁신법』에 근거해 첨단 모빌리티에 대한 보다 명확한 조사 기준을 마련했다.

『모빌리티혁신법』은 첨단 모빌리티를 '새롭고', '차별성 있는' 교통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지만, 그 개념은 다소 추상적이다. 이에 따라 실제 조사를 위해서는 이용자, 전문가, 정책기관의 시각을 반영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TS는 전통적인 교통체계와 구분되는 첨단 모빌리티 즉, ICT, AI, 자율주행 기술, 새로운 동력 및 운영 방식 등이 접목된 교통 수단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정의의 외연을 확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TS는 첨단 모빌리티의 범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눴다. 첫째 △수단·서비스·기술 영역으로, 수요응답형 교통(DRT), 카 셰어링, 공유 PM·자전거, 플랫폼 택시, 자율주행, UAM 등을 포함한다. 둘째 △기반시설 영역으로, 스마트 정류장, PM 주차장, 정밀도로지도, 전기차·수소차 충전소 등이 해당된다.

TS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2024년 12월 전국 16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1차 현황조사에 착수해 현재 진행 중이다. 2차 조사는 2025년 하반기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절차는 서비스별 조사지표를 바탕으로 조사양식을 구성하고,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데이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첨단 모빌리티의
고속 성장에 발맞춰,
현장의 정확한 실태 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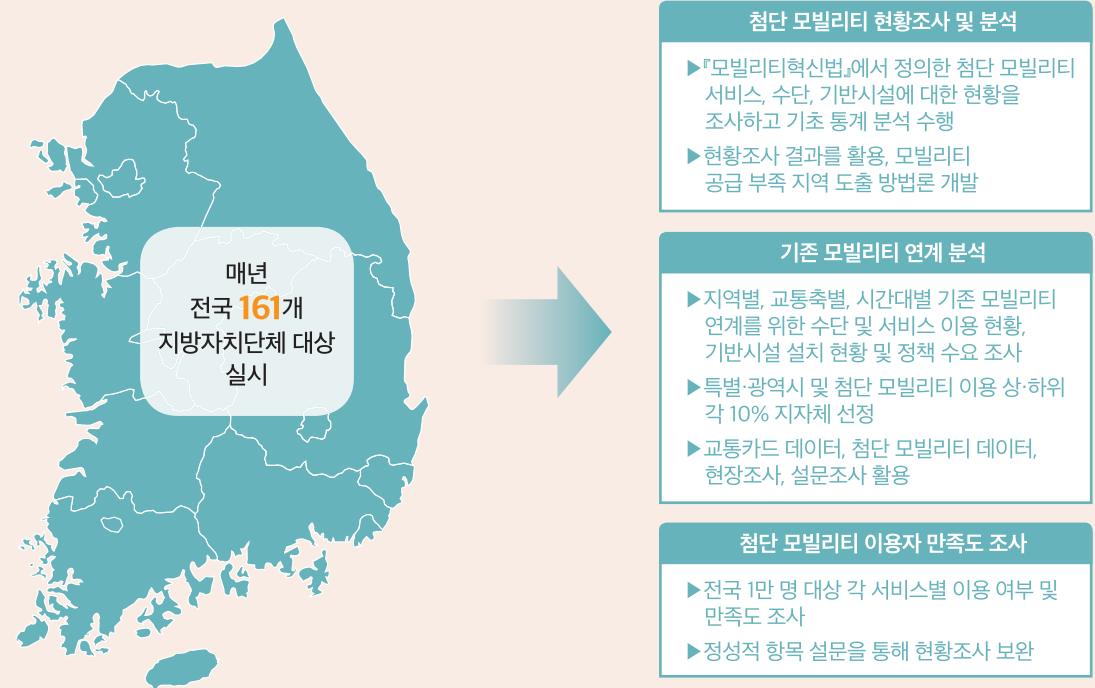
회신된 자료는 수합 및 정리 후 분석에 활용되며, 미회신 지역에는 보완을 요청하고 있다. 민간 서비스를 운영하는 지역의 경우, 해당 업체 목록을 별도로 파악해 데이터를 수집 중이다.

이와 함께 첨단 모빌리티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도 병행한다. 전국 161개 지자체에 거주하는 만 14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남녀 1만 명(2024년 5,000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조사를 실시하며, 첨단 모빌리티 운영사와 연계한 추가 설문조사도 추진한다.

TS는 다층적인 조사를 통해 첨단 모빌리티의 실태와 이용자 만족도를 입체적으로 파악해 공공 교통 정책 수립, 지역 맞춤형 플랫폼 설계 등 정책 실행력을 높이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첨단 모빌리티 현황조사 사업 범위



◆ 첨단 모빌리티 현황조사 세부적 조사 대상 및 연구

구분	조사 대상	본 연구
첨단 모빌리티 (수단·서비스)	수요응답형	운영형태(콜/앱 기반), 배차형태(예약/실시간), 동승 가능 여부(버스/택시)에 따라 서비스 수준을 3단계로 분류
	카셰어링	기본대여시간 2시간 미만의 공유차존 기반 비대면 서비스로 한정
	공유 PM·자전거	매장을 제외한 일부 PM·자전거로 한정
	플랫폼 택시	여객자동차 플랫폼 타입(운송, 가맹, 중개)에 따라 분류
	MaaS	서비스 개발 단계를 고려해 지자체 단위 시행사업을 중심으로 사례조사
	자율주행 버스·택시·환승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중심으로 사례조사
첨단 모빌리티 (기반시설)	UAM	도심항공교통 그랜드 챌린지 중심으로 사례조사
	기반시설	첨단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반시설 중심 조사
	디지털도로	정밀도로지도 정보 제공 현황 및 진단내용 구체화
	친환경차 시설	전기차·수소차 충전소, 친환경차 검사소 위치 및 분포 현황조사

2024년 현황조사를 통한 발전 방향 모색

첨단 모빌리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현황조사 체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모빌리티혁신법』은 지자체에 한해 데이터 수집 근거를 두고 있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적 기반은 부족한 실정이다.

2024년 실시한 현황조사에서는 민간 기업들이 데이터 공유에 소극적이었으며, 특히 실무 수준에서는 적절한 편익이 없으면 데이터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현실이 드러났다. 일부 기업은 사업 전략 노출 우려를 이유로 데이터 협조를 거부하기도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사 전 단계에서부터 공공·민간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의체와 간담회를 정례화해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특히 유료로 제공 가능한 민간 데이터를 구분해 구매 방식으로 확보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정부는 선제적으로 보유 데이터를 공개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협의체·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협력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데이터 확보를 넘어, 민간의 자발적 조사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핵심적이다. 또한 자율주행, 드론 등 개별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국가단위 현황조사와 첨단 모빌리티 현황조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조사 간 연계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첨단 모빌리티 현황조사는 공공과 민간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정확한 실태 파악과 분석이 이뤄질 때, 더욱 효과적이고 현장에 맞는 정책 수립이 가능해진다. TS는 앞으로도 이러한 혁신과 협력을 바탕으로 첨단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데 앞장서겠다.

첨단 모빌리티 현황조사는 공공과 민간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NEWS CHANNEL



뉴스로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사람, 도로, 철길, 하늘길까지 TS가 지키는 교통안전 이야기



충북 영동군 전국 군 단위 교통문화지수 1위!

보행자·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사망자 '0' 달성

충청북도 영동군이 '2024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서 군 단위 전국 1위를 차지하며, 작지만 강한 교통안전 도시로 우뚝 섰다. 이륜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률 전국 1위,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전국 2위, 전 좌석 안전띠 착용률 전국 5위 등 생활 속 교통안전 실천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최근 1년간 보행자 및 사업용 차량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점은 주목할 만하다.

글: 편집실

2024년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충북 영동군은 종합점수 87.39점을 기록하며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군 단위 1위에 올랐다. 군 지역 평균 점수인 79.95점을 크게 웃도는 점수로, 전북 고창군(87.30점), 충남 금산군(86.94점)을 제치며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 가장 모범적인 교통문화를 실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영동군의 이 같은 성과는 단기간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 군은 지난 2019년부터 6년 연속으로 교통문화지수 A등급(상위 10%)을 유지해오며, 지역 주민과 함께 꾸준한 교통안전 문화 정착에 힘써왔다. 특히 이륜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률 전국 1위,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전국 2위, 전 좌석 안전띠 착용률 전국 5위 등 실생활과 밀접한 교통안전 지표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으며, 교통안전 관련 예산 확보 노력 또한 전국 1위를 기록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앞장섰다.

특히 영동군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축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보였다. 최근 1년간 보행자 및 사업용 차량 관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성과로, 지역 내 교통안전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을 방증한다. 다만, 횡단보도 횡단 중 스마트기기 미사용 준수율, 신호 준수율, 제한속도 준수율 등 일부 항목에서는 유사 규모의 타 지자체 대비 다소 미흡한 수치를 보여, 해당 지표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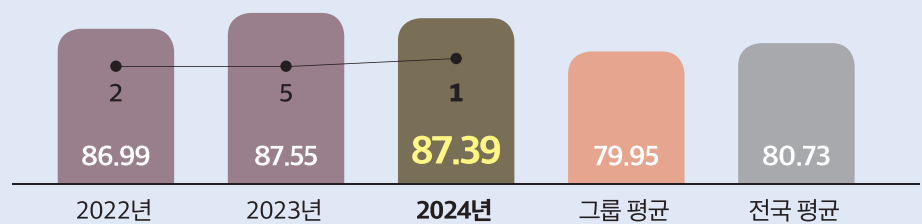
영동군은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교통문화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연간 1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 교통약자 안전시설 보강, 운전자 대상 캠페인 및 홍보 활동 등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을 추진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인식 개선에 앞장선다는 각오다.

◆ 충북 영동군 교통문화지수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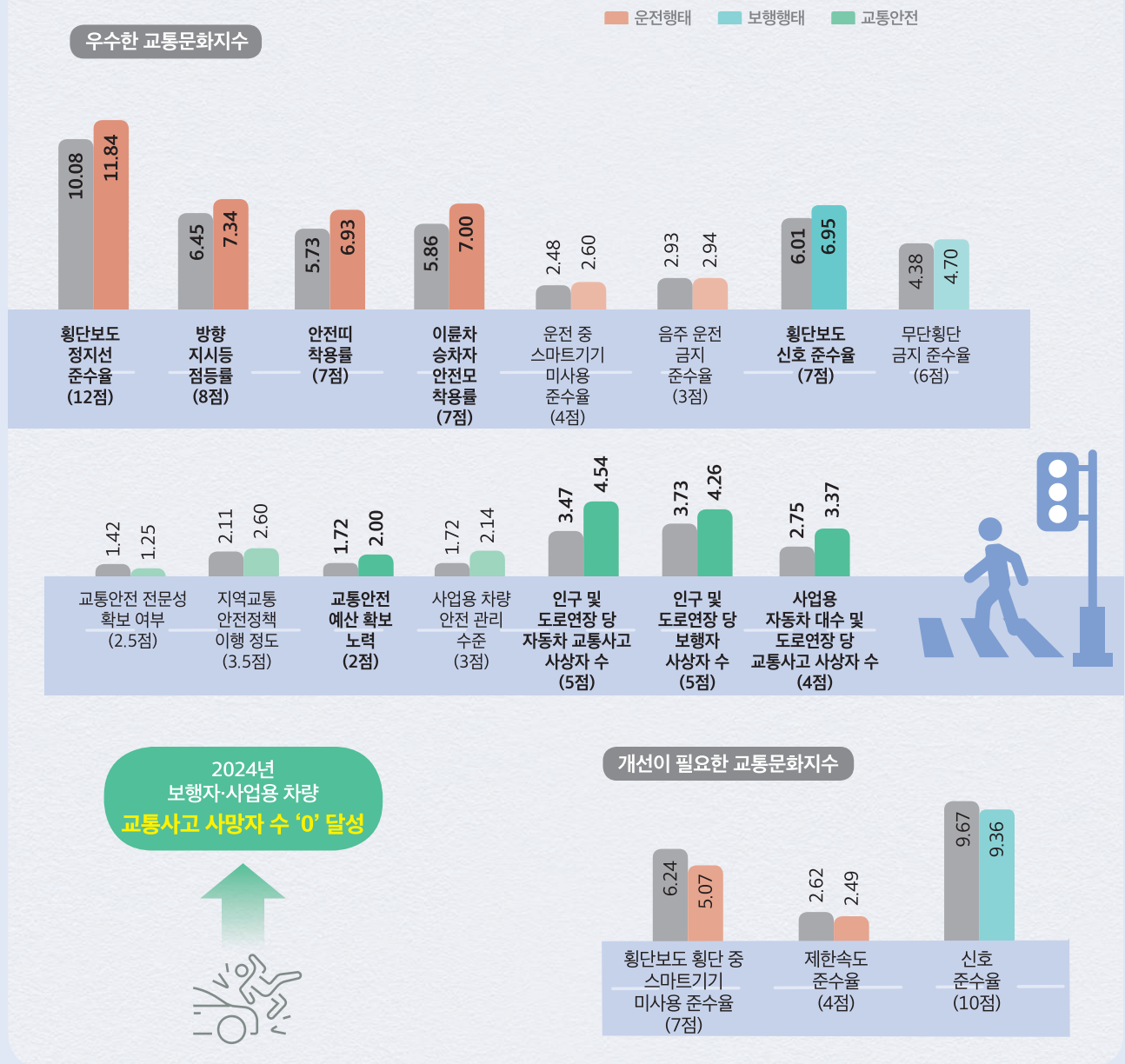
'22년~'23년 교통문화지수 '24년 교통문화지수

'24년 그룹 평균(군 지역) '24년 전국 평균

● 순위 (단위: 점)



◆ 한눈에 보는 2024년 영동군 교통문화지수 (단위: 점)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매년 실시하는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는 전국 229개 시군구(인구 30만 이상 시, 인구 30만 미만 시, 군, 자치구 4개 그룹)를 대상으로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 3개 조사항목에 대해 평가해 국민의 교통안전 의식과 교통문화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한다. 또한 매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문화 우수도시'를 선정·포상해 지자체 간 자율적 교통안전 경쟁은 물론 교통문화 향상을 촉진한다.

영동군
교통문화 향상
우수 사례



공영주차장·간이 시외버스정류장 조성으로 불법 주정차 및 주민 불편 해소

영동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문화 개선

글_편집실 사진_영동군

영동역 인근 교통 민원 해결에 앞장

영동군은 지난 2024년, 계산동 제3공영주차장과 간이 시외버스정류장을 함께 조성해 지역 교통문화 개선에 크게 앞장섰다. 이번 사업을 추진한 영동읍 계산리 658-6번지 일대는 영동역 인근으로, 그동안 주변 상인들과 열차 이용객의 장기 주차 및 불법 주정차 문제 등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됐다.

영동군은 이러한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시외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총 1,435.5㎡ 규모의 부지에 32면의 주차 공간과 간이 시외버스정류장을 새롭게 조성했다. 이번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선정돼 기금을 지원받아, 2022년부터 총 13억 원을 투입해 토지 매입과 실시설계를 거친 뒤 2024년 3월 착공해 12월 완공했다.

현재 주차장은 정상 운영 중이며, 정류장에는 무인발권기와 대합실이 설치돼 이용객의 편의를 높였다. 또한 영동군은 충청북도와의 협의를 거쳐 청주행 시외버스를 증차해 하루 5회 운행 중이며, 첫차는 오전 6시 50분, 막차는 오후 8시 영동에서 출발한다.

이용객과 운수 종사자 편의성 향상에도 기여

영동군은 이번 계산동 제3공영주차장과 간이 시외버스정류장 조성 사업을 통해 열차 이용객은 물론, 운수 종사자의 편의성도 높였다.

영동역 인근에 간이 시외버스정류장을 설치해 환승 접근성은 물론, 기존 일반 버스 정류장과 함께 사용되던 시외버스 정류소의 혼잡 문제도 개선했다. 뿐만 아니라 정류장 내에는 운수 종사자를 위한 휴게 공간과 화장실을 마련해 근무 여건 개선에도 기여했다.

영동군은 매년 1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지속적으로 교통문화 개선에 힘써오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오랫동안 골칫거리였던 불법 주정차 문제 해소는 물론, 주민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으로써 지역 교통문화지수를 높이는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으로도 영동군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하며,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영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 사업 개요

위치	영동읍 계산리 658-6번지
사업 기간	2022. 1. ~ 2024. 12.(완공)
규모	간이 시외버스정류장 및 주차장 조성(총 면적1,435.5㎡)
총 사업비	36억 8,000만 원 (보상비 23억 4,100만 원, 사업비 13억 3,900만 원)
사업 내용	간이 시외버스 승강장(면적 147.9㎡) 주차장 조성(32면)

◆ 사업 기대효과



주차 공간 확보로
불법 주정차 및 장기 주차
문제 해소



영동역-시외버스정류장-
공영주차장 연계로
주민 교통 편의성 향상



간이 시외버스정류장 조성으로
주민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제고



운수 종사자
휴게공간 등 조성으로
근무여건 개선

장마철, 수막현상과 침수 도로 이렇게 대비하세요!

본격적인 여름 장마가 시작되면, 하루아침에 도로가 수영장이 되는 풍경도 낯설지 않다. 쏟아지는 폭우 속 운전자가 마주하게 되는 가장 큰 위험은 수막현상과 침수 도로. 잠깐의 방심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계절, 도로 위 ‘물의 함정’에 대비하는 확실한 방법을 알아본다.

글 서란희 시니어 기자(77세)

빗길 위 수막현상을 아시나요?

기후변화로 국지성 호우가 잦아지면서 빗길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 특히 젖은 노면 위에서 발생하는 수막현상은 차량의 제어력을 상실하게 만들어 매우 위험하다. 갑작스러운 침수 도로 역시 차량 손상은 물론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수막현상은 고속 주행 중 타이어 트레드가 물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해,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얇은 물막이 생기면서 발생한다. 이때 차량은 마치 물 위를 미끄러지듯 ‘붕’ 뜨며, 핸들과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게 된다. 이게 바로 빗길 위의 수막현상이다. 마치 영화 속 슬로우 모션처럼,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 차는 타이어와 노면 사이의 물막으로 인해 마찰력이 급격히 줄어들고, 결국 운전자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미끄러지게 된다.

게다가 타이어에 있는 ‘트레드’라 불리는 미끄럼 방지 홈이 닳아버리면, 빗길에서의 접지력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진다. 여름 장마철에 내리는 억수 같은 비는 하늘에서 실 새 없이 퍼부으며 도로 위를 거대한 ‘수영장’으로 만든다. 여기에 노면의 질감, 경사, 물의 깊이, 그리고 강수량도 수막현상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타이어 관리가 중요하다. 트레드 마모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최소 3mm 이상의 깊이를 유지해야 한다. 마모가 심한 타이어는 즉시 교체하고, 휠 얼라이먼트 이상 유무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타이어의 적정 공기압을 유지하는 것도 접지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또한 빗길에서는 속도를 낮추고, 기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전해야 한다. 제한 속도를 지키는 것은 기본이며, 급제동이나 급차선 변경은 자제하고, 가능한 한 조작을 부드럽게 해야 한다. 무엇보다 출발 전 기상 상황과 도로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습관이 사고 예방의 첫걸음이다.

예측 불허, 침수 도로 ‘데스 존’에서 살아남는 법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침수 도로 사고도 반복된다. “설마 내가?” 하는 순간, 차량은 움직일 수 없게 되고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침수 도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도사리는 ‘데스 존(Death Zone)’이다. 알아 보이는 물속에도 맨홀, 장애물, 강한 물살 등 위험 요소가 숨어 있어 절대 진입해선 안 된다. ‘이 정도면 갈 수 있 어’라는 안일한 생각은 정말 위험하다.

침수 도로를 만나면 우회가 원칙이며, 내비게이션과 재난 방송 등으로 실시간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진입할 경우, 1~2단 저속 기어로 멈추지 않고 천천히 한 번에 통과해야 하며, 중간에 멈추면 엔진에 물이 들어가 고장 위험이 크다. 또한 물속에서 시동이 꺼졌다면 절대 다시 시동을 걸지 말고,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타이어가 절반 이상 물에 잠겼다면, 진입을 포기하고 후진하는 것이 안전하다. 앞차가 무사히 지나갔다 해도 내 차도 괜찮으리란 보장은 없다. 급제동이나 급핸들은 차량 균형을 잃게 하므로 피하고,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며 엔진 브레이크로 자연스럽게 감속해야 한다. 핸들은 곧게 유지하거나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살짝 돌려 자세를 잡고, 브레이크는 나눠서 부드럽게 밟아야 한다.

만약 차량이 물에 갇혔다면 비상등을 켜 위험을 알리고, 수압으로 문이 안 열릴 경우 창문 또는 비상 탈출 망치로 탈출해야 한다. 침수된 차량은 반드시 정비소를 방문해 점검을 받아야 한다. 침수 도로에선 단 한 번의 판단이 생사를 가를 수 있다.

수막현상과 침수 도로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죽음의 덫’이다. 이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안전운전 습관. 마모된 타이어는 사망을 부르는 ‘슬릭 타이어’와 같다. 주기적인 점검과 교체는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천천히’는 빗길에서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다. 빗길 위 과속과 급조작은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게 만들 수 있으니, 주의 또 주의하자.



수막현상 예방 위한 안전운전 습관

타이어 점검은 필수

트레드 깊이는 최소 3mm 이상 유지하고, 마모 상태는 정기적으로 확인

속도 줄이기

시속 80km 이상에서는 수막현상 위험이 급격히 커짐. 물이 고인 도로에서는 평소보다 20~30% 속도 감속

공기압 유지 소홀히 하지 않기

공기압이 낮으면 타이어와 노면의 접지력이 떨어져 배수 능력 저하

침수 도로 운전 대처법

- 침수 도로, 무조건 우회!
- 차량 바퀴 1/2 이상 잠기면 진입 금지
- 부득이하게 진입했다면, 저속 기어로 멈추지 않고 통과
- 시동 꺼지면 절대 다시 켜지 말 것!
- 차량에 갇혔다면 창문 또는 망치 이용 탈출

침수된 내차 보상받을 수 있나?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침수된 경우 자기부담금만 내고 보험 보상이 가능하다. 주차장에 세워둔 내 차는 일반적으로 1년 동안만 할인이 유예된다. 창문, 선루프 등을 열어둔 상태에서 발생한 침수 피해는 ‘차량 소유주의 과실’로 간주되어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전기차, 전용진로에서 안전하게 검사받으세요!



TS 부산본부, 자동차검사 중 전기차 화재 대비 합동훈련으로 대응력 강화

국내 전기차 등록대수가 68만 4,000대(2025. 4. 7. 기준)를 넘어서며 화재 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 특성상 화재 발생 시 진압이 어렵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TS 부산본부는 해운대소방서 및 관할 검사소와 함께 전기차 검사 중 화재 상황을 가정한 합동훈련을 실시해 대응 역량을 점검했다. 실전을 방불케 한 합동훈련 현장을 생생히 담았다.

글 김혜영 사진 김근호

실제 상황을 가정한 화재 진압 훈련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배터리를 꼽고 있다. 전기차의 배터리는 외부 충격에 매우 민감한데, 차량 하부에 장착돼 있다 보니 움직임에 따른 파손 위험이 있다. 또 화재에 취약한 소재로 이뤄져 있는 것도 화재 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잇따른 전기차 화재 사고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이 믿고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검사소 환경을 조성하고,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화재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지난 3월 26일, TS 부산본부(이하 부산본부)는 전기차 화재 가운데서도 자동차검사 중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운대소방서와 관할 검사소(해운대·주례·사하) 합동으로 훈련을 시행했다. 이번 합동훈련은 해운대검사소에 전기차 등을 검사하기 위해 준공한(‘24.12.) 친환경자동차 전용 검사진로(이하 전용진로)에서 실시됐다. 당일 훈련은 검사 중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 방법 등을 숙지하고 직원들의 화재 진압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전기차 전용진로에서 가상의 전기차 화재 상황을 재현해 시행됐다. 1단계는 검사소 재난대응 조직에 따른 대응 활동, 2단계는 질식소화포를 활용한 화재 진압, 3단계는 이동식 침수조를 활용한 진압으로 진행됐다.

먼저 1단계에서는 전용진로 내 진입해 있는 전기차에서 화재 이상 징후를 발견한 상황을 제시하고, 차량 외부 이동, 탑승 직원 대피, 초기 진화, 소방서 신고 등의 순서로 소방서 출동 전까지 검사소에서 대응할 수 있는 초기 대응 매뉴얼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2단계에서는 신고 접수 후 출동한 해운대소방서에서 화재 차량을 진압하는 과정이 진행됐다.



1 해운대검사소 전기차 전용 검사진로에서 배터리를 점검하는 모습
2, 3 해운대검사소 자동차검사 중 전기차 화재 대비 합동훈련 모습



우선 차량 하부에 상방 방사 관창을 삽입해 배터리가 있는 하단부에 물을 분사하고, 질식소화포를 차량 전체에 덮어 화염이 외부로 번지지 않게 하면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과정이 이어졌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이동식 침수조를 차량 주변에 설치하고 수조 내 물을 분사해 차량이 완전히 물에 잠기도록 하는 과정이 이어졌다. 이는 배터리 내 잔존 에너지로 인한 재발화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훈련을 통해 부산본부 및 관할 검사소 담당자들은 검사소 내 화재 대응 매뉴얼을 점검하고, 실제 전기차 화재 진압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모니터링 의견을 청취해 추후 진행될 화재 훈련 시 개선점을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TS는 지난 2023년부터 전기차 등 친환경차와 첨단 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을 검사할 수 있는 전용진로를 준비해왔다. 2023년 12월 국내 최초로 서울 성산검사소 구축을 시작으로 구로검사소와 부산 해운대검사소에 각각 1개 진로씩 개축하며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국민의 안전한 친환경차 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전용진로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와 첨단차를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내연기관 중심의 기존 검사진로를 새롭게 리모델링한 것이다.

이날 훈련을 통해 부산본부 및 관할 검사소 담당자들은 검사소 내 화재 대응 매뉴얼을 점검하고, 실제 전기차 화재 진압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모니터링 의견을 청취해 추후 진행될 화재 훈련 시 개선점을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4, 5 2024년 12월 해운대검사소에 새롭게 구축된 전기차 전용 검사진로
6 합동훈련에 참석한 부산본부와 해운대소방서, 그리고 관할 검사소 관계자 단체 사진

INTERVIEW

“고객 눈높이에 맞춘 안전한 검사환경을 갖춰나가겠습니다”

석광진 TS 부산본부장

Q 이번 화재 대비 합동훈련을 실시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기차 등록 대수가 60만 대를 돌파한 만큼 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특히 전기차 화재는 진압이 어렵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사전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검사소에서는 관할 소방서와 함께 매년 정기적인 화재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지만, 전기차 화재는 그 특수성과 위험도를 고려해 별도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합동훈련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Q 부산본부 및 관할 검사소 시설물에서 화재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부산본부와 검사소는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각 소속의 소방 편성 임무에 따라 화재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동차 화재 시에는 즉시 대피하고 주변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며, 전기차 배터리 화재는 소화기로 진화하기 어려우므로 초기 진화를 피하고 안전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화재 발생 시에는 신속히 소방서에 전기차 여부와 위치를 정확히 알리고, 바람을 등진 채 15~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안전하게 대피하며, 소방관이 도착하기까지 주변을 통제해 주시면 됩니다.

Q 해운대검사소가 전용진로를 구축하고, 소방서와 합동훈련까지 진행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운대검사소는 지난해 말, 서울을 제외한 지역 검사소 중 유일하게 친환경차 전용진로를 선제적으로 구축했습니다. 현재는 전기차의 검사 비중이 크지 않지만, 향후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대비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와 구조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만, 이를 전문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고객의 불안과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신뢰도 높은 검사를 받고 싶다는 요구도 꾸준히 있었습니다. 공단은 이러한 필요성에 공감해 전기차에 특화된 검사라인을 마련했고, 전용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 소방서와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미래를 대비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검사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Q 화재 대응 훈련에서도 드러나듯이, 전기차는 배터리 상태가 중요한데, 전용진로에서는 어떤 검사가 이뤄지나요?

전용진로에서 진행되는 검사 중 절반 이상이 배터리 상태 점검에 집중돼 있습니다.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값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어, 배터리의 전압, 전류, 온도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이상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BMS는 배터리 셀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온도를 조절하며 충·방전 상태에 따른 수명까지 분석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SOC(State of Charge) 및 SOH(State of Health)도 함께 진단해 전반적인 배터리 성능을 확인할 수 있죠. 이처럼 정밀한 검사를 통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 부산본부의 목표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이번 합동훈련을 계기로 전기차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TS NEWS

1

여름철 수소·CNG 버스 안전성 높인다

TS, 국토부·지자체 등과
버스 2만 1,000여 대 특별점검 실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8월 말까지 전국 수소·천연가스(CNG) 버스 2만 1,000여 대를 대상으로 하절기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TS와 국토교통부, 지자체, 자동차 제작사,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시내버스 운수회사 등이 상호 협력해 추진하며, 여름철 압력 상승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내압용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용기 손상 여부, 연료장치 가스 누출 여부, 안전장치 작동상태 등 항목을 면밀히 점검한다.

전체 수소·CNG 버스 중 시내버스 1만 8,000여 대는 각 운수회사 및 제작사가 1차적으로 자체 점검하고, 중대 결함이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 국토부·TS 등으로 구성된 특별 점검반이 정밀 점검을 수행한다. 마을버스, 전세버스, 관용버스 등 3,000여 대는 TS 검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입고시킨 후 점검하는 등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시행한다.



2

車 첨단안전장치(ADAS) 이용 시 전방주시 필수

TS, 교통사고 모사상황 충돌 여부 등
ADAS 시험 결과 공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첨단안전장치(ADAS)를 이용하는 운전자에게 다양한 교통 환경을 완벽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스마트폰 사용 등 전방주시 태만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TS는 자동차 전문 채널인 오토뷰와 공동으로 첨단안전장치 중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작동 여부에 대한 시험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시험은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잘하고 있는 경우 충분히 회피가 가능한 3가지 시나리오로 ①차량이 전방에 정차된 경우와 추가로 정차된 차량 후미에 사람이 있는 경우, ②차선 가장자리에 사람이 있는 경우, ③사고로 인해 차량이 45도 회전한 경우 3가지로 시험했다. 그 결과, 정상적인 운전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에서 첨단안전장치에 의존할 경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다수 발생했다.



HIGHLIGHT

3

교통약자 맞춤형 ‘행복한 이동복지’ 선사한다

TS,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로
교통약자 서비스 10건 승인·4건 시범사업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약자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 향상과 교통복지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는 2023년 10월에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교통약자 이동 편의 관련 서비스를 총 10건 승인했고, 이 중 4건은 올해 1월부터 시범사업을 개시했다. 실제 시범 운영으로 이어진 실증특례 사례를 살펴보면, ▲유니버설 디자인 전기택시 ▲교통약자 맞춤 병원 동행서비스 등 총 4건이다.

유니버설 디자인 전기택시는 교통약자와 일반인의 동등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택시로, 국내에서 해당 차량 개발은 첫 사례다. 교통약자 동행서비스는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를 병원으로 운송하고 병원 내 동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상 운송서비스로, 이번 실증을 통해 민간에서도 교통약자 대상 자가용 유상운송 특례를 부여받게 됐다.



4

“화물차 무사GO 안전운전 포인트 적립하세요”

TS, 11월 30일까지 위드라이브 앱 활용
안전운전 프로젝트 추진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화물차 운전자의 자율적인 운전습관 개선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위드라이브 앱을 활용한 ‘화물차 무사GO 안전운전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화물차 무사GO 안전운전 프로젝트는 자동차 운행기록을 분석할 수 있는 운전 플랫폼(위드라이브)을 활용해 ▲장거리 운행 시 휴게시간 준수 ▲제한속도 준수 ▲안전운전 점수 등 3가지 안전운전 미션을 수행한 화물차 운전자에게 현금처럼 활용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한다.

이 밖에도 TS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운전 상식 퀴즈, 화물차 안전운전 인증 챌린지 등 화물차 교통안전 콘텐츠를 추가로 제공한다. 참여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위드라이브’ 모바일 앱을 내려받은 후, 해당 앱 내에서 화물차 운전자임을 인증하면 참여할 수 있다.



#TS SNS HIGHLIGHT

▶ 유튜브(숏츠 & 영상)



**무인수직이착륙기도
조종자격증 취득이 필요합니다!**

무인수직이착륙기 조종자격증 취득
알고 계셨나요? 제도 시행에 맞춰
자격 취득과 기체 신고를
미리 준비하세요!

#조종자격 #무인이착륙기
#항공안전 #한국교통안전공단



**신차 안전도 평가
11개 차종 선종**

TS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는
신차 11개 차종을 대상으로 신차 안전도
평가를 올해 말까지 시행할 예정으로,
그 결과는 수시로 공개할 계획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신차안전도평가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교통안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TS가 새로운
교통안전 캠페인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겠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부
#오늘도무사고



📷 인스타그램



**텐주와 함께 알아보는
어린이 지하철 안전수칙!**

안전한 지하철
이용 방법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TS #어린이지하철안전
#지하철안전수칙



**5월부터 이륜차 정기검사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하세요!**

사전 예약을 통해
TS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 수검이 가능해집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TS
#이륜차정기검사 #온라인사전예약
#이륜차온라인사전예약



📝 블로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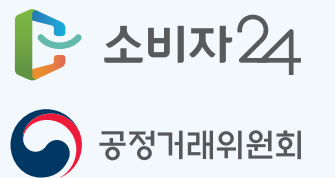
**TS, 배달라이더
착한 안전운전 유도한다**

배달라이더, 사고 줄이고
신뢰 올리는 데이터 기반 운행기록계
장착 시범사업 시행

#TS #배달라이더 #운행기록계장착
#라이더운행기록계장착



정부가 운영하는 소비자포털 공신력 있는 소비자정보 피해구제까지 한번에



소비자24 홈페이지 바로가기

PLAY CHANNEL



즐거운 소통으로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TS 임직원은 물론 교통안전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행복한 소통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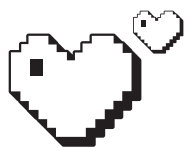


coffee truck



시원한 커피 한 잔으로 나른한 오후를 활기치게 시동!

START



TS 성산검사소

바쁜 일상 속 커피 한 잔의 여유는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이다. 그래서 특별히 준비했다. 수백 대의 차량을 점검하고, 안전을 지키며 바쁘게 돌아가는 성산검사소 직원들을 위해 커피와 쿠키로 평소보다 조금 더 달달하고 부드러운 하루를 선물했다.

글_심우리 사진_장병국 영상_최의인



커피트럭과 함께한 즐거운 오후

전날까지 내리던 비가 멎고 맑게 갠 지난 5월 14일,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성산검사소에 작은 파란이 일었다. 언제나처럼 분주한 일상 사이로 낮선 커피트럭 한 대가 등장했기 때문. 평소처럼 차량 검사 준비로 분주하던 직원들부터 성산검사소를 찾은 고객들까지 모든 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에 멈춰버렸다.

“와! 연예인 촬영장애나 있는 거 아니야?”

“언제부터 시작해요?”

이벤트가 시작될 시간이 채 되기도 전에 직원들이 삼삼오오 커피트럭 앞으로 모여들었다. 휴대폰을 꺼내 커피트럭을 촬영하거나 메뉴를 찍어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에게 전송하는 등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설렘이 가득했다.

오후 12시, 본격적인 커피 타임 시작. 커피 외에도 다양한 에이드와 티, 3종류의 바삭한 쿠키까지 즐길 수 있다 보니 커피트럭 앞으로 점심을 먹고 달려온 직원들이 길게 줄을 늘어섰다. 어떤 음료를 마실까 고민에 빠진 직원들에게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마음껏 드세요!”라는 말을 건네자, 본인은 물론 자리를 비울 수 없는 동료를 위해 직접 쟁반까지 동원해 커피 배달에 나선 직원들도 있었다. 게다가 이른 더위 탓인지 연신 ‘아이스’를 외치는 ‘얼죽아’들의 행렬이 이어졌고, 좋아하는 음료를 더블로 주문하거나 평소 궁금했던 음료까지 통크게 주문하는 모습에 현장은 내내 웃음꽃이 피었다.

아이스 바닐라라테를 시원하게 들이키던 이성진 차장은 “드라마나 영화 현장에서 연예인들이 이용할 것 같은 커피트럭을 일하는 곳에서 만나니까 좀 신기해요. 항상 바쁘게만 돌아가던 검사소인데, 잠깐이라도 이렇게 웃으며 커피를 마시니까 오늘 하루가 다르게 느껴집니다”라며 밝게 웃었다.



“서울 서북권 교통의 중심지다 보니 검사 수요가 많아 항상 바쁘죠. 특히 마포·영등포·강서구 등 인근 지역을 위한 출장검사소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고객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검사 대상 차량 분산 효과도 함께 얻고 있어요. 특히 강서구에는 대형차까지 검사할 수 있는 출장소를 추가 개소할 계획입니다.”

또 이정우 부장은 성산검사소가 특별한 이유는 체계화된 시스템에 있다고 힘주어 설명했다. “성산검사소는 단순히 점검을 위한 공간에 머물지 않아요. 검사 중 차량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사진 촬영 및 하부 영상 분석 시스템을 통해 고객에게 시각적으로 안내하고, 간단한 전구 교체나 정비는 검사소 내 원스톱 서비스 센터에서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 친환경자동차 전용 검사진로 구축

성산검사소가 특별한 이유는 또 있다. 바로 국내 최초 친환경자동차 전용 검사 진로를 설치했다는 것. 현재 1개 라인이 운영 중이며, 전기차에 특화된 절연저항 측정 장비, 원터치 테스트 시스템, 화재 발생 시 대응을 위한 방화포,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소방훈련 시스템까지 두루 갖추고 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처럼 배출가스 검사는 하지 않지만, 감전 위험 등 전기차만의 안전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절연저항 테스트를 원터치로 수행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했죠.” 이정우 부장은 실제 운영 중인 전용진로를 직접 안내하며, 미래 검사 기준을 선도한다는 자부심을 드러냈다.

성산검사소는 검사 인프라뿐만 아니라 직원 복지와 근무 환경에서도 모범적이다. 이정우 부장은 그중에서도 지하철역 인근의 뛰어난 접근성, 쾌적한 근무 공간, 자유로운 휴가 사용 문화는 큰 장점으로 손꼽았다.

Coffee and cookies



전국 최대 검사 인프라 갖춘 '자동차 건강검진센터'

향긋한 커피와 달콤한 쿠키를 든 직원들은 둥그렇게 모여 한시도 쉬지 않고 웃고 이야기하며 정오의 여유를 제대로 즐겼다. 모두 즐기는 와중에도 성산검사소는 물론 서울본부, 고객센터 직원 중 혹시 빠진 사람이 있는지 현장을 꼼꼼히 살피던 이정우 부장도 “이런 이벤트는 처음이에요. 마치 연예인 된 기분일까요?”라며 얼굴 가득 함박웃음을 지어보였다.

2010년에 성산검사소에서 근무하다 15년 만에 돌아왔다는 이정우 부장은 “성산 검사소는 국내 최대 규모의 대표 검사소예요. 저도 여러 지역에서 일해 봤지만 이곳처럼 첨단 장비를 갖춘 검사소는 손에 꼽을 정도거든요. 이전에도 좋은 곳이었지만 지금은 시설이나 인프라면에서 더욱 뛰어나기 때문에 직원뿐만 아니라 고객에게도 보다 앞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라며 뿌듯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정우 부장의 말처럼 성산검사소는 단순한 검사소가 아닌 전국 최대 규모의 자동차검사소이자 서울의 교통안전을 지키는 핵심 거점이다.

총 6개의 검사 라인을 보유한 성산검사소는 대형 차량부터 소형, 이륜차, 전기차까지 다양한 차종에 대한 정기·종합검사, 튜닝 검사, 신규 검사, 전술차 수리검사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평일 아침부터 수백 대의 차량이 줄지어 찾아 만큼 성산검사소의 하루는 쉼 없이 돌아간다.





오늘의 커피 한 잔이 내일의 안전으로

무엇보다 성산검사소가 강조하는 것은 ‘안전’이다. 미래 모빌리티 시대로 인해 내연기관차가 점점 사라지더라도 그에 맞는 검사 항목과 기준을 새롭게 발굴하고 적용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교통안전 파수꾼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각오다. 이정우 부장 역시 목소리를 높였다.

“저희 성산검사소의 최종 목표는 명확해요. ‘교통사고 예방과 대국민 안전 확보’죠. 이를 위해 신규 출장소 확대, 검사 항목의 다변화, 친환경 검사라인 확대, 고객 만족도 제고라는 4대 과제를 중심으로 조직을 재정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할 일도 많고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모를 때도 많은데, 이렇게 분주한 일상 속에서 커피 한 잔이 주는 위로가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저희 성산검사소를 기억해 주고 응원해 주는 마음이 느껴져 너무도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성산검사소는 오늘도 변함없이 바쁘게 돌아간다. 수백 대의 차량이 지나가고, 고객들과 마주하고, 또 안전을 점검하는 일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직원들에게 커피 한 잔의 여유로움이 작은 심표로 남기를 바란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쿠키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주한
일상 속에서 커피 한 잔이
주는 위로가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저희 성산검사소를
기억해 주고 응원해 주는
마음이 느껴져 너무도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Mini Interview

연예인이
된 것 같은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이정우 부장

전국 최대 규모의 대표 검사소인 성산검사소에서 총괄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커피트럭 이벤트를 통해 마치 연예인이 된 것 같은 기분도 들었네요. 팬들이 선물 보내주는 느낌이 라고 할까요? 커피도 맛있었고, 직원들도 좋아해서 정말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성산검사소 직원들은 말은 바 임무를 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서로 도와주고 챙겨주는 화합도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힘을 합쳐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성진 차장

신규 검사, 임시 검사, 튜닝 검사, 이륜차 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맡고 있으며 차대번호표기 같은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2년 3월 19일에 입사해 만으로 13년 넘게 근무하고 있는데 이런 커피트럭 행사는 처음이었어요. 안그래도 점심 먹고 축 축 처지는 몸을 리프레쉬할 수 있어 너무 좋았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검사소에도 이런 기회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커피 한 잔의
응원이 더 널리
퍼지길 바랍니다



올 여름
더욱 뜨겁게
파이팅해요!



김민욱 과장

서울 서북권 교통의 중심지인 성산검사소에서 자동차검사 업무 뿐 아니라 기타 검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7년째 근무 중인데 점심 먹고 시원한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이런 이벤트를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성산검사소에서 일하고 있다는 게 뿌듯해지네요.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TS와 이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인데 다 함께 파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민정 행정인턴

성산검사소에서 접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예약 변경이나 취소 처리, 튜닝·임시 검사 접수를 맡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벤트를 진행하는 줄 몰랐는데, 다행히 참여하게 돼 너무 좋았어요. 오후를 채울 수 있는 동기가 된 것 같아 더 없이 행복하네요. 아직 입사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고객님의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세요”라는 사소한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될 때가 있는데, 앞으로도 더 자주 들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열정은 더 뜨겁게, 열기는 이 커피로 더 시원하게! 성산검사소의 안전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열정은 더 뜨겁게,
열기는 커피로
더 시원하게!



시니어의 눈으로, 모두의 안전을 그리다

장은조·조원표 TS 시니어 교통안전 작가



천만 시니어 시대, 이제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여기, 글을 통해 인생 2막의 이야기를 즐겁게 써내려 가는 두 시니어가 있다. 바로 ‘TS 시니어 교통안전 작가’로 활약 중인 장은조·조원표 작가다. 오랜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누군가의 안전한 내일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인 두 사람을 만났다.

글_심우리 사진_장병국

2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TS 시니어 교통안전 작가’로 활동 중인 두 사람은 ‘글’을 통해 다양한 대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뜨거운 관심, 더 무거운 책임

지난 3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식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TS 시니어 교통안전 작가’ 모집 소식을 알렸다. 공고가 올라오자마자 관심 있는 시니어들의 문의와 지원이 이어졌고, 온라인 게시판과 댓글 창은 열기로 가득 찼다.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공단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통한 것이다.

결과는 놀라웠다. 단 10명을 뽑는 자리에 무려 200명이 지원해 20대 1이라는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치열한 관문을 뚫고 최종 합격한 이들 가운데 장은조·조원표 작가도 있었다.

“정말 치열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교통안전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고 놀랐어요.”

선발 당시를 회상하며 소감을 전한 두 사람은 이번 프로그램이 첫 시행임에도 예상보다 높은 관심을 받았다는 사실이 인상 깊었다고 입을 모았다.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교통안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 의지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기 때문이다. 장은조 작가는 “이제는 교통안전이 모두의 일이라는 인식이 조금씩 자리 잡는 것 같아서 시니어 작가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더 무겁게 느낀다”며 얼굴 가득 함박웃음을 지었다.

퇴직, 끝이 아닌 시작

장은조·조원표 작가는 TS 시니어 교통안전 작가라는 공통점 외에도 닮은 점이 많다. 조원표 작가는 초등학교에서, 장은조 작가는 고등학교에서 수많은 학생을 가르친 교사 출신이라는 점은 물론, 34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치고 퇴직했다는 점도 닮았다. 특히 ‘글’을 통해 다양한 대외 활동을 이어가며 자신의 목소리를 전달하려는 모습까지 말이다.

“어릴 때부터 글쓰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교사로 근무하면서도 틈틈이 공모전에 참가해 입상하기도 했고, 지난 2016년에는 한국예총에서 수필가로 등단하기도 했어요.”

조원표 작가가 글쓰기에 대한 오랜 애정을 간직해 온 것처럼, 장은조 작가 역시 글을 통해 학생이 아닌 세상과의 소통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퇴직 후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그러다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지도하면서 노트북에 써 놓은 글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글들을 다듬으면서 시를 쓰게 됐고, 최근에는 시인으로 등단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양한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조원표 작가는 전쟁기념관과 독도체험관 해설사 교육을 받고 있고, 장은조 작가는 서울시 정책 홍보인 플루언서를 비롯해 은평구 주민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며 어르신 인권교육과 지역문화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senior



시니어 작가들은 핸드폰으로 교통안전 현장 사진을 찍어 글과 함께 올리기도 한다.

안전을 쓰는 사람들, 멈추지 않는 걸음

4개월 동안의 TS 시니어 교통안전 작가 활동은 7월에 마무리 되지만, 장은조 작가와 조원표 작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두 사람은 모두 “이건 그냥 한 번 해보고 마는 활동이 아닌 앞으로도 꼭 이어갈 일”이라며 자신 있게 말했다.

장은조 작가는 현재 집필 중인 교통약자 관련 시와 수필을 모아 책으로 엮는 걸 준비 중이다. 또 폐교를 활용한 체험형 교통안전 교육장이라는 아이디어로 입법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조원표 작가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주제로 한 칼럼을 교육 전문지에 연재하고 있고, 시니어 대상 시민 교육 콘텐츠도 차근차근 만들어갈 계획이다.

“교통안전은 법이나 표지판만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죠. 서로를 조금만 더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돌아본다면 많은 사고는 줄어든 수 있어요. 우리가 쓴 글이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니어 세대를 향한 따뜻한 조언도 덧붙였다.

“퇴직하고 나면 뭘 해야 할지 막막한 때가 많죠. 그럴 때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나눔 봉사, 글쓰기, 마을 강좌 등 주변에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아요. 망설이지 말고 한 번 도전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작은 보도블록 하나, 짧은 신호등 시간 하나에도 주목하고, 어린이와 어르신의 하루가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는 장은조·조원표 작가. 쓰고, 나누고, 알리면서 시니어의 눈으로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두 사람의 행보가 계속 되기를 기대해본다.

천천히 걷는 사람을 먼저 보는 사회

퇴직 후 오히려 더 바쁘게 살고 있는 두 사람의 관심은 온통 ‘교통안전’에 쏠려 있다. TS 시니어 교통안전 작가라는 사명감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경험을 통한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더 깊이 있고, 세심하게 전달하고 싶기 때문이다. 특히 두 사람이 강조하는 건 ‘교통 약자’에 대한 배려다. 장은조 작가는 “교통 안전은 ‘교통’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봄만 되면 팔 깁스 하신 분들 유독 많아요. 무릎, 팔, 발목... 대부분 보도블록 단차 때문이에요. 단순한 사고 같지만, 어르신들에게는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보도블록 단차로 인한 낙상 사고, 횡단보도의 짧은 신호 시간, 점점 위협이 되는 개인 이동수단 등 이 모든 것이 고령자에게는 큰 위험요소다. 장은조 작가는 시니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도시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고령 운전자에 대한 배려도 살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 운전자에게 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반납 이후의 삶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조원표 작가는 ‘어린이 교통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교통안전 교육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느끼게 해야 한다. 직접 보고, 걷고, 체험해 보는 교육이 아이들한테는 훨씬 오래 남는다”며 힘줘 말했다.

장은조 작가도 교통안전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강하게 공감했다. 단순한 교통질서 암기가 아닌, 실질적 체험과 공감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 장은조 작가는 “교육과정 안에서 일상화돼야 한다”고 설명하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교통안전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정규 수업 안에 녹여 넣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니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도시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고령 운전자에 대한 배려도 살피야 합니다.”



장은조 작가



보도블록 단차로 인한 낙상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며,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를 촉구하는 TS 시니어 교통안전 작가들.



TS 시니어 교통안전 작가들의 글이 올라가는 TS 블로그

“우리가 쓴 글이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조원표 작가



내 곁의 생기 어린 작은 숲, 식물 테라리움 가드닝

Terra



Arium

살며시 들여다보면 산들바람이 살랑 스치고 지나가는 한여름의 숲처럼 싱그럽다. 내 곁의 생기 어린 자연, 테라리움에서 느끼는 힐링과 위안이다. 손수 식물을 심고 초록 이끼를 덮어 자그마한 정원으로 완성하는 가드닝에 한국교통안전공단 가족 4명이 함께했다.

글_오민영 사진_장병국 협조_로이캔플라워

대자연을 고스란히 옮겨놓은 듯한 나만의 정원

초여름 한낮의 더위가 물러가고 어느새 상쾌한 공기가 감도는 저녁, 나뭇결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테이블 위에 마치 여향을 연상케 하는 투명한 유리 용기 네 개가 놓였다. 곧이어 굵은 마사토와 배양토, 야자나무 숯, 납작한 젓빛 돌, 화산재, 이끼, 온갖 식물 등이 나란히 자리했다. 모종삽과 가위, 그리고 핀셋까지 갖추면 마침내 준비 끝. 설레면서도 호기심 어린 눈빛의 한국교통안전공단 가족은 각자 작업용 앞치마를 두르고 소미라 강사 주위로 모였다. 특별히 김두환 교통안전정책실 자격교육처 차장은 딸 채윤이와 손잡고 참여했다. 그러자 서성미 대외협력실 과장과 홍효권 항공안전실 항공안전처 연구원의 입가에 절로 미소가 떠올랐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이시연 항공안전실 드론관리처 연구원이 합류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뤘다. “테라리움(Terrarium)은 라틴어로 땅을 의미하는 테라(Terra)와 용기 혹은 방이란 뜻인 아리움(Arium)이 결합한 개념이에요. 즉 습도가 있는 투명한 유리 용기 안에 재배하는 작은 정원이라 할 수 있죠. 식물 뿌리에서 머금은 수분이 잎사귀 기공으로 나와 표면을 따라 흘러 다시 흡수하는 원리에 따라 내부의 물과 산소가 순환한답니다.”

“테라리움은 습도가 있는 투명한 유리 용기 안에 재배하는 작은 정원이라 할 수 있죠.”

강사가 설명과 함께 보여준 다양한 식물 테라리움 작품에 감탄이 뒤따른다. 과연 유리 너머로 대자연을 옮겨놓은 듯한 풍경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러한 테라리움은 스트레스 완화와 공기 정화, 미세먼지 제거 등에 효과적이다. 더욱이나 대략 2~3일에 한 차례 물을 가볍게 분무해 주면 충분할 정도로 관리가 손쉽다.

다채로운 빛깔의 식물들 섬세하게 심는 손길

드디어 본격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테라리움 작품을 구현할 차례다. 우선 유리 용기에 배수를 도울 마사토를 1cm가량 깔아주는데 그보다 더 넣으면 전체적으로 볼록하게 솟을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한다. 이어서 항균과 습기 제거 기능이 있는 야자나무 숯을 적당량 얹고, 영양분이 있는 세척 배양토를 어느 정도 경사지게 쌓는다. 유리 용기 표면으로 균형 있게 겹겹이 올린 층을 확인한 서성미 과장이 만족했는지 고개를 끄덕인다. 그런가 하면 홍효권 연구원은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정성껏 바탕을 골랐다. 참고로, 디자인에 있어 정답은 없다. 공들여 다진 기반 위에는 원하는 대로 식물과 돌을 배치한다. 김두환 차장과 채윤이가 젓빛 돌로 계단을 세우고 거친 재질의 화산재를 곳곳에 배치했다. 이미 위치 지정을 마친 이시연 연구원은 식물 식재에 나섰다. 테라리움에 알맞은 식물 종류로는 무난히 환경에 적응하는 고사릿과가 다수다. 피토니아의 일종인 화이트스타와 레드스타, 아스파라거스, 더피, 후마타, 나한송 등의 줄기를 적절히 나누고 핀셋으로 섬세하게 심자 점차 다채로운 빛깔이 어우러진다.



직사광선과 과습을 주의한다면 오래도록 함께할 수 있어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모를 만큼 집중하다 보니 어느새 마무리할 순서가 왔다. 이끼를 두텁지 않게 다듬어서 식물 심은 곳에 덮어주면 서서히 뿌리내려 생태계를 이룬다고. 마지막으로 귀여운 피규어를 장식하는데 분리가 쉬운 개체는 글루건으로 고정할 수 있다.

기분 좋게 테라리움을 지그시 감상하던 홍효권 연구원이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질문하자, 다들 동시에 소미라 강사를 바라보았다.

“테라리움은 햇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곳에서 잘 자랍니다. 조명 없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밝기면 충분해요. 오히려 직사광선 아래에선 잎이 타들어 가 노랗게 변색하죠. 또, 과습을 피해야 하는데 잎이 검게 변했을 때 통풍이 원활한 데 두고 지켜봐 주세요. 수분 공급이 과해서 뿌리가 상하면 복구하기 어렵답니다.”

주의 깊게 들은 네 명과 채윤이가 비로소 작품을 보며 흐뭇하게 웃는다. 언제든 마주할 수 있는 초록빛 자연이 있기에 즐거움은 더없이 상쾌할 테다.



“과습을 피해야 하는데 잎이 검게 변했을 때 통풍이 원활한 데 두고 지켜봐 주세요.”



“싱그러운 정원을 손수 꾸미는 시간, 즐거웠나요?” 식물 테라리움 가드닝에 나선 소감 한마디

“마침 딸 채윤이와 테라리움 원데이 클래스에 함께할 수 있어 더욱 뜻깊었습니다. 평소 아이 방에 자그마한 정원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같이 만든 작품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듯합니다. 앞으로 채윤이가 초록빛 자연과 더불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하길 바라봅니다.”



김두환 교통안전정책실 자격교육처 차장

“이전에 꽃꽂이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테라리움을 접했고, 한 차례 완성해 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식물을 손수 다듬고 심는 과정에서 따스한 위안을 얻곤 해서 원데이 클래스에 도전했는데 역시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오늘 완성한 작품은 사무실 책상에 두고 대외협력실 직원 여러분과 함께 즐기고 싶습니다.”



서성미 대외협력실 과장

Terrarium

“테라리움에 고요하고도 많은 분위기를 구현하고자 했는데 잘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올해 여름을 앞두고 자연과 식물이 어우러지는 활동을 하고 싶었던 만큼 만족도 100%입니다. 우리 집 고양이 또한 저처럼 작품을 신기해하면서 좋아할 듯해요.”



이시연 항공안전실 드론관리처 연구원



홍효권 항공안전실 항공안전처 연구원

“나만의 비밀 정원이자 숲이라는 콘셉트로 테라리움을 꾸며보았습니다. 현재 혼자 자취 생활하고 있는데 가끔 작품을 들여다보고 물 주면서 여유를 충족할 수 있을 듯합니다. 역시 자연이 곁에 있으면 심신이 정화되는 기분이에요.(웃음)”

당신의 업무 소통 방식은?

어떤 방식이 더 편하신가요? 빠르게 기록을 남기고, 말 실수 걱정 없이 소통하는 메신저 채팅?, 표정과 뉘앙스까지 오해 없이 전할 수 있는 대면 소통? TS 임직원들은 어떤 소통 방식을 선호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정리 편집실

"톡 하나면 충분해!"

메신저 채팅파

메신저 파일 송부를 통해 종이 출력 등 자원 낭비를 줄이고, 담당자 부재 시 메모를 남기거나 필요시 과거 메신저 전송 기록 검색 등을 통해 1회성 의사 소통이 아닌 지속적인 소통이 가능합니다.

배**

민원대에서 근무하다 보면 업무 시간에는 직원들과 직접 대면 소통이 쉽지 않고, 소통하더라도 내용 전달 및 공유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이라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채팅 소통 방식을 선호합니다!

남**

직장인에게 시간은 생명! 시간 절약을 위해 메신저로 빠르게 소통해야 일 처리도 빠르게 진행되죠!

장**

메신저로 세세하게 설명하는 편인데, 보내기 전 내가 혹시 맞춤법은 틀리지 않았는지,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보내는 건 아닌지 확인할 수 있어서 선호합니다. 마음 편히 소통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대면 시에는 말도, 행동도 조심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

상급자, 직원들과 대면 회의나 소통 시 긴장으로 인해 말을 잘 못할 수 있으나 메신저로 주고 받을 땐 생각을 정리하며 이야기할 수 있어 좋습니다.

윤**

설문조사 5. 13~20(8일간)
참여 TS 임직원 108명

50명(50%)

"톡 하나면 충분해!"
메신저 채팅파

108명

45명(41.7%)

"얼굴을 봐야 소통이 돼"
직접 대면파

9명(8.3%)

기타
(하이브리드파)

"얼굴을 봐야 소통이 돼"

직접 대면파



글자로는 의사소통 방식 표현에 한계가 있습니다. 대면해 이야기할 경우 표정도 함께 표현할 수 있기에 상대방을 이해시키기 더 좋아서 저는 직접 대면파를 선택했습니다.

안**

대면 소통을 통한 업무 처리 방식이 결론이 더 빨리 나는 느낌,,,?! 파워 J형 인간은 계획된 업무를 빨리 끝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메신저 답장 기다리기 너무 힘들어요~

김**

텍스트만으로 모든 의사 표현을 주고 받기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면소통은 상대방의 표정과 목소리 톤으로 진짜 의도를 파악할 수 있고 즉각적인 피드백으로 오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글로 쓰기 복잡한 내용도 한 번의 미팅으로 해결되는 효율성도 있습니다.

이**

메신저나 전화로 설명해도 불가능했던 간단한 예러 사항도 얼굴 보고, 간절한 눈빛과 부드러운 말투, 미소로 최대한 소통하려고 노력하면 해결되는 경우가 개인적으로 많았습니다. 기기 문명도 좋지만, 인간적인 아날로그적 소통도 때론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정**

단순히 글로 전달하는 것보다 표정과 몸짓 등을 통해 더 정확한 내용과 업무의 긴급성을 알릴 수 있습니다. 메신저로만 소통 시 뉘앙스 등에 대한 전달 한계로 상대방의 오해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전**

CULTURE CHANNEL



교통안전은 일상에 스며들어 문화가 됩니다.
여행, 교양, 명화 등 다채로운 일상에서 발견하는 안전과 문화 이야기



1

하늘 길과 바닷길을 따라가는 남해안 절경 ‘사천·남해’

비행기 타고 떠나는 남해도 여행

남해도는 수도권에서 자동차로 한나절 내내 달려야 도착할 수 있는 섬이다. 말 그대로 천 리 길이다. 이 먼 길을 가장 수월하고 빠르게 가려면 항공편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사천공항에 도착해서 렌터카로 20여 분만 달리면 남해도 관문인 창선·삼천포대교에 들어선다. 산과 바다가 맞닿은 남해도에서는 길을 달리는 것만으로도 머릿속까지 상쾌해진다.

글, 사진_ 양영훈(여행작가)



2

3

다섯 개 다리가 그린 풍경, 창선·삼천포대교

남해도의 두 관문 중 하나인 창선·삼천포대교는 ‘다리의 전시장’이라 불린다. 저마다 다른 형태와 크기의 교량 5개가 독특한 풍광을 연출한다. 2006년에는 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 가운데 대상을 받은 명품 드라이브 길이기도 하다. 특히 현란한 오색조명 속에서 교량 5개가 바다를 가로지르는 밤 풍경, 사천케이블카를 타고 각산 정상(408m)에서 내려다보는 창선·삼천포대교의 전경은 보기 드문 장관이다.

전체 길이가 3.4km나 되는 창선·삼천포대교의 중간에는 모개섬, 초양도, 녹도 등의 섬들이 징검다리처럼 떠 있다. 그중 초양도는 일부러 들러볼 만하다. 면적 0.074km²(2만 2,300여 평)의 이 손바닥만 한 섬에 사천바다케이블카 초양 정류장, 아라마루 아쿠아리움과 동물원, ‘사천 아이’ 대관람차, 전망대와 휴게소, 둘레길 등 다양한 시설이 갖춰져 있다. 그래서인지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 관광객들이 유난히 많다.

- 1 해안 절벽 위로 구불구불 이어지는 물마해안도로의 보물섬 전망대
- 2 사천공항 전경(©한국공항공사)
- 3 창선·삼천포대교의 중간에 위치한 초양도 전경

바다를 품은 길, 창선도와 지족해협

창선·삼천포대교를 건너면 남해군의 3개 유인도 가운데 가장 큰 창선도에 들어선다. 창선도 초입의 단항 회전교차로에서는 길이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12시 방향으로 곧장 직진하면 3번 국도(동부대로)이고, 오른쪽의 대벽리 방면으로 차를 돌리면 창선도 서쪽의 진주만 해안을 따라가는 서부로가 시작된다. 이 해안도로는 늘 번잡한 3번 국도에 비해 한갓저서 느긋하게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다. 서부로가 거쳐 가는 남해군 창선면 대벽리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우람한 후박나무가 있다. ‘남해 창선도 왕후박나무’(천연기념물)로 이름 붙여진 이 나무는 수령이 무려 500년쯤 된 고목이다. 임진왜란 당시 이 부근을 지나던 이순신 장군이 잠시 쉬면서 점심을 먹었다고 해서 ‘이순신 나무’로도 불린다.

각자 다른 방향으로 창선도를 가로질러 온 3번 국도와 서부로는 지족해협에 놓인 창선교 앞에서 다시 만난다. 남해도와 창선도 사이의 지족해협에는 시속 13~15km의 거센 조류가 흐른다. 이 조류를 따라 헤엄치던 멸치, 전어, 광어, 문어, 송어 등은 해협 곳곳에 설치된 20여 개의 죽방렴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간다. 죽방렴 안쪽의 불통 안에 모여든 생선들은 커다란 뜰채로 건져내기만 하면 된다. 이 ‘남해 지족해협 죽방렴’은 2010년에 국가명승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역사가 숨 쉬는 숲, 낮익은 이국의 마을

창선교를 건너온 길은 남해군 삼동면 지족삼거리에서 다시 두 갈래로 나뉜다. 왼쪽의 3번 국도를 선택하면, 예로부터 '일점섬도'(一點仙島; 신선이 사는 한 점의 섬)라 불려 온 남해도의 빼어난 풍광을 온전히 감상할 수 있다. 이 삼거리에서 8km쯤 달리면 삼동면 물건리의 동그런 해변을 둘러싼 명품 숲이 눈에 들어온다. 남해안에서 아름답기로 첫손에 꼽히는 인공 숲이다.

'물건리 방조어부림'(천연기념물)은 바닷물이 넘치는 것을 막고, 농지와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이곳 마을 사람들이 17세기에 처음 조성했다. 이 숲은 마을 앞바다로 물고기 떼를 유인하는 역할도 한다. 길이 750m, 너비 40m가량의 이 숲에는 높이 10~15m의 우람한 고목들이 빼곡하다. 팽나무, 푸조나무, 느티나무, 이팝나무, 무환자나무 등의 낙엽 활엽수가 대부분이지만, 상록수인 후박나무가 드물지 않다. 여름철에는 나무 그늘이 시원해서 더위를 피해 휴식하기에 좋고, 아름드리 나무들 사이로 탐방로가 조성돼 있어서 가벼운 산책코스로도 제격이다.

물건리 방조어부림과 물건향이 흰히 내려다보이는 언덕에는 독일마을이 자리 잡았다. 1960~70년대에 독일에서 광부나 간호사로 일하며 외화를 벌어들였던 사람들이 조국 땅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조성된 마을이다. 2000년부터 공사가 시작돼 현재는 40여 채의 독일식 주택이 들어서 있다. 비탈진 마을 길을 찬찬히 걷다 보면, 마치 독일의 어느 소도시를 찾은 정취가 느껴진다.

3번 국도의 삼동면 물건리~미조면 미조항 구간은 특별히 '물미해안도로'라는 이름이 붙었다. 맑고 푸른 남해가 상쾌하게 조망되는 산허리와 해안 절벽을 끊임없이 구불거리거나 오르내리며 14km 가량 이어지는 길이다. 차창 밖으로 잇달아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은점, 대지포, 가인포, 노구, 향도, 초전 등의 바닷가 마을들은 엽서 속의 풍경처럼 아름답고 서정적이다. 그 가운데 향도마을과 초전마을의 몽돌해변은 해수욕과 캠핑을 함께 즐길 수 있어서 여름철 피서지로 추천할 만하다.

금산의 품에 안긴 하늘길과 은모래비치

미조항에서 자동차로 약 5분 거리에는 설리스카이워크가 있다. 바닷가의 높은 언덕에 위치한 전망대다. 바다 쪽으로 길게 뻗은 이 전망대의 유리 바닥을 지나서 '하늘그네'를 타고 허공을 가르면, 온몸에 짜릿하게 퍼지는 전율과 스릴이 한여름의 무더위를 순식간에 날려 버린다.

설리스카이워크에서는 남해안의 대표 해수욕장 중 하나인 상주은모래비치가 멀지 않다. 넓고 완만한 백사장, 울창한 숲,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늘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이 해수욕장의 북쪽에는 남해의 진산(鎭山)인 금산(681m)이 우뚝하다. 예로부터 '남해 금강'으로 불려 온 금산은 무려 38경의 절경을 품은 명산으로도 유명하다. 특히 우리나라 3대 관음도량의 하나인 보리암 주변에는 저마다 독특한 모양의 쌍홍문, 대장봉, 좌선대, 일월봉, 상사바위, 흔들바위, 돼지바위 등이 즐비하다. 초승달 모양의 상주은모래비치와 호수처럼 잔잔한 앵강만 바다, 미조항 부근의 범섬과 매섬 등이 거침없이 시야에 들어오는 조망도 일품이다.

남해도와 창선도 바닷가에는 총길이 263km의 '남해 바래길'이 조성돼 있다. 그중 딱 한 코스만 걷는다면 10코스(앵강다숲길)를 추천할 만하다. 산과 바다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남해도의 진풍경을 고스란히 들여다볼 수 있는 명품 트레킹 코스다.



- 4 초승달 모양의 넓은 백사장과 울창한 숲을 품은 상주은모래비치
5 탁 트인 바다 전망과 짜릿한 스릴을 즐길 수 있는 설리스카이워크
6 독일의 어느 마을 일부를 옮겨 놓은 듯한 남해 독일마을의 해질녘 풍경



상주은모래비치는 넓고 완만한 백사장, 울창한 숲,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늘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여행 Tip

사천공항 항공편

김포 ↔ 사천 1일 2회 왕복(김포 09:55 16:45 출발, 사천 11:40 18:25 출발), 제주 ↔ 사천 1일 1회 왕복(제주 13:20 출발, 사천 15:25 출발)

숙박

독일마을에는 '독일마을 호텔'로 불리는 홈스테이 숙소가 20~30곳 운영 중이다. 마을 홈페이지(<https://german-village.kr>)를 통해 상세 정보와 예약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남해도와 창선도 일대에는 펜션, 호텔, 캠핑장 등의 숙박시설이 무수히 많아서 여름철 성수기에도 숙소를 구하기가 어렵지 않은 편이다. 다만, 국립남해편백자연휴양림(055-867-7881)의 숙소는 워낙 인기가 좋아서 예약하지 않으면 이용하기 어렵다. 사천에서 하룻밤쯤 묵는다면 사천시에서 직영하는 사천케이블카자연휴양림(055-835-9524)을 추천한다. 피톤치드 향 가득한 편백나무숲에 야영장, 숲속의집, 휴양관 등이 들어서 있다

맛집

남해를 대표하는 별미 중 하나로 싱싱한 멸치가 주재료인 멸치쌈밥을 빼놓을 수 없다. 죽방렴 근처인 삼동면 지족리의 우리식당(055-867-0074)이 멸치쌈밥 맛집으로 유명하다. 지족해협의 달반늘(장어돌판구이, 055-867-2970), 미조항의 지산식당(북국, 055-867-7754)과 해사랑전복마을(전복요리, 055-867-7571) 등도 소문난 맛집들이다. 독일마을의 부어스트라덴(055-867-6550)은 슈니첼, 굴라쉬, 슈바이네 학센 등 독일 요리를 맛볼 수 있다. 근처 르뱅스타독일빵집(055-864-7588)은 늘 많은 손님으로 장사진을 이룬다. 사천공항 근처의 재건냉면(055-852-2132)은 1948년부터 3대를 이어온 노포 냉면집인데, 육전을 고명으로 올려주는 점이 특이하다.

‘밤 문화가 달라졌다!’ 무더위 피하는 도심 속 밤 문화 기행



한낮의 더위가 노을빛에 식어갈 무렵, 도심 속 특별한 기행이 시작된다. 열대야 걱정 없는 미술관에서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강변 야시장에서 맛갈스러운 음식과 함께 하루의 스트레스를 날린다. 차 없는 바닷가에서 감미로운 음악에 빠져들 무렵, 캄캄한 밤하늘을 드론이 화려하게 수놓는다. 간단한 간식까지 챙겼다면 야간 피크닉도 놓칠 수 없는, 지역별 도심 밤 문화 기행을 소개한다.

글_임운석(여행작가)

경복궁과 나란히 이어진 미술관 거리는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동쪽에 위치한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로, 현대와 전통이 조화를 이룬 매력적인 거리다. 거리 곳곳에 미술관과 갤러리가 모여있는 것은 물론이고 문화와 예술을 콘셉트로 문을 연 카페도 여럿 있다. 그중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은 현대미술 애호가들에게 성지와 다름없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건물은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 일제강점기 경성의전 외래진료소를 시작으로 옛 국군기무사령부 본관을 거쳐 현재 미술관으로 사용 중이다. 무엇보다 현존하는 국내 근대 건축물 가운데 20세기 초의 모더니즘을 완벽하게 구현한 수작으로 평가받는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은 신축 전시관을 비롯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룬다. 미술관 뒤편에 조선시대 왕실의 족보를 관리하던 종친부 건물이 건재하고, 그 뒤로 우뚝 솟은 인왕산은 조선시대 풍류객들이 즐겨 찾던 피서지였다. 미술관에서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에 나타난 인왕산의 수려한 풍경까지 감상할 수 있다. 현재 만날 수 있는 전시로 <론 뮤익>, MMCA 서울 상설전 <한국현대미술 하이라이트>, <기울인 몸들: 서로의 취약함이 만날 때> 등이 있다.

달빛 아래 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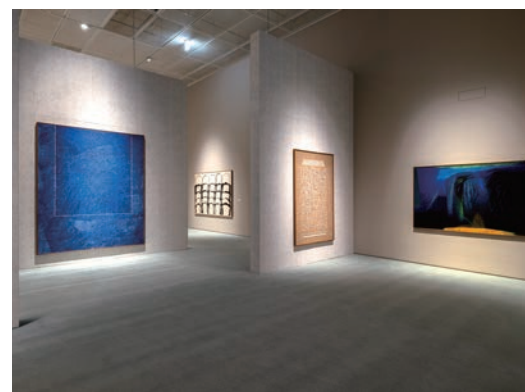


사진: 국립현대미술관

대구를 대표하는 시장으로 서문시장과 칠성시장을 꼽는다. 서문시장이 포목점을 중심으로 발전했다면 칠성시장은 사과와 농산물을 중심으로 성장해왔다. 원래 동천시장으로 불리다 해방 이후 북문시장을 거쳐 현재는 칠성시장으로 정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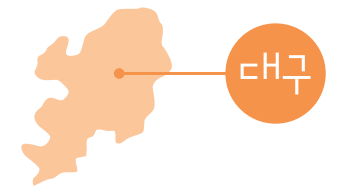
여행을 목적으로 칠성시장을 찾다면, 낮보다 밤이 더 불만하다. 2019년 11월 신천고가 차도 아래 신천변에 처음 문을 연 별별상상 칠성야시장은 입맛 자극하는 먹거리가 가득한 데다 주문한 음식을 현장에서 먹을 수 있는 휴게공간도 400석 정도 마련돼 있다.

야시장이 가장 붐비는 때는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이다. 대구 10미 중 하나인 막창구이를 비롯해 납작만두, 닭꼬치 같은 전통음식부터 삼겹말이, 팟타이와 같은 퓨전 음식까지 선택지가 많은 것이 장점이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칠성 수제맥주와 수성 고량주를 맛볼 수 있다. 물론 두 가지를 조합한 칵테일과 칠성야맥도 즐길 수 있다.



사진: (재)대구진동시장진흥재단

확자지컬 야시장, 대구 별별상상 칠성야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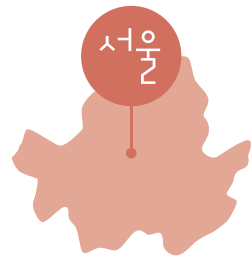


시장에 가족 단위는 물론이고 2030 젊은층과 중장년층 등 다양한 연령대가 찾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칠성야시장은 신천변에 위치해 도심 한복판에 있는 야시장처럼 좁거나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강바람이 시원한 데다 전체적으로 밝은 분위기여서 관광지의 야시장이 연상된다.

금요일 밤과 주말 밤에는 중앙 무대에서 공연이 펼쳐져 야시장의 흥과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린다. 야시장 운영시간은 금요일과 토요일엔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다. 대중교통은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칠성시장역 1번 혹은 4번 출구와 가깝다.

- 문의 053-621-1985~6
-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시장로 28
- 시간 금·토(18:00~23:30), 일·월·목(18:00~22:30)
- 요금 메뉴에 따라 다름



- 문의 02-3701-9500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30
- 시간 월·화·목·금·일(10:00~18:00), 수·토(10:00~21:00)
- 요금 야간 무료, 주간 전시별 상이

시원한 바다에서 특별한 밤을 보내고 싶다면,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자리한 광안리 해변에 주목하자. 오는 7월 6일부터 8월 31일까지 매주 주말 저녁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광안해변로 일원에서 광안리 ‘차 없는 문화의 거리’를 운영한다.

2007년부터 시작한 광안리 ‘차 없는 문화의 거리’는 광안리를 찾은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자유롭게 차 없는 도로를 거닐며 색다른 광안리의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부산 대표 야간 문화 축제다. 해마다 축제 콘셉트를 차별화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할 만한 행사로는 차 없는 광안해변로를 걸으며 버스킹, 초크아트, 보드게임, 씨글라스 목걸이 만들기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지난해에는 전국 스트리트댄스 경연대회, 광대 연극제, 한여름 밤의 클래식 음악회, 발코니 음악회 등 수준 높은 문화 공연도 함께 즐길 수 있었다.



빼놓을 수 없는 밤바다, 부산 광안리 ‘차 없는 문화의 거리’

- ☎ 문의 051-610-4000
- 📍 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219
- 🕒 시간 7~8월 중 토·일요일(21:00~23:30)
- 💰 요금 무료

매주 토요일 광안리해변 상공에서 펼쳐지는 ‘광안리 드론라이트쇼’도 놓칠 수 없다. 공연 주제에 따라 드론 수가 700~2,000대까지 다양하다. 드론쇼 관람하기 좋은 곳은 해변 정중앙에서 도로 가장자리에 있는 계단이 최고의 명당이다. 하절기 공연은 오후 8시와 오후 10시 두 차례 진행된다.

한편, 7~8월 차 없는 문화의 거리 운영 시 SUP존 앞 삼거리~만남의 광장 구간은 밤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차량 통행이 양방향으로 전면 통제될 예정이다.



사진: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이맘때 광주에서 손꼽히는 핫플레이스가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이 바로 그곳. 하늘마당은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인기를 얻어오다가 SNS에 인생사진 핫플로 알려지면서 방문객이 크게 늘고 있다. 하늘마당은 6,986.7㎡ 규모 공간에 푸릇푸릇한 잔디가 드넓게 깔린 데다 잘 조성된 산책로와 제철 꽃이 활짝 피어 피크닉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야간에는 조명까지 밝혀 인생사진을 찍기에도 그만이다. 인근 카페와 상점에서는 피크닉 세트를 대여한다. 세트는 라탄 바구니에 돗자리, 랜턴, 컵 등이 들어 있다. 잔디밭에 돗자리를 깔고 누우면 하늘을 지붕 삼아 웅기종기 모인 가족 같은 단란함에 시간 가는 줄 모른다. 특히 잔디의 생육 상태가 좋아서 바닥이 딱딱하지 않고 오래 앉아 있어도 불편하지 않다. 방문객들이 즐겨 먹는 간식으로는 치킨, 피자, 분식류 등 다양하다. 그도 그럴 것이, 하늘마당은 광주예술의 거리, 금남로 차 없는 거리, 동리단길 카페거리와도 가깝고 교통도 편리하다.

하늘마당이 자리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2015년에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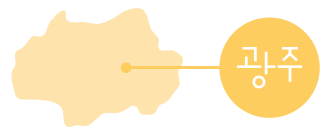
- ☎ 문의 1899-5566
- 📍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38
- 🕒 시간 월~일요일(07:00~22:00)
- 💰 요금 하늘마당 무료



사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을 연 복합문화공간이다. 문화정보원과 문화창조원은 매주 수·토요일 저녁 8시까지 연장 개장한다. 문화창조원에서는 세계적인 예술가 잭슨 폴록, 마크 로스코 등 거장 21명과 함께하는 최고의 원화 컬렉션 <뉴욕의 거장들: 잭슨 폴록과 마크 로스코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



여름밤 피크닉,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

김홍도의 <풍속화첩 : 나룻배>

모두를 평등하게 대한 ‘나룻배’

글. 이원율(기자)



김홍도, <풍속화첩 : 나룻배> 18세기 후반, 지본담채, 27x22.7cm, 국립중앙박물관

두 사공이 노를 힘껏 젓는다. 맨 앞엔 갓 쓴 선비가 장죽을 들고 있고, 그 뒤로 삿갓을 쓴 이들과 땀 나무를 진 소가 시장길에 오른다. 이는 단원 김홍도의 <풍속화첩 : 나룻배> 속 전경이다. 양반부터 평민, 짐승까지 웅기종기 모였다. 상하와 성별 구분 없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건 당시로는 보기 힘든 장면이었다. 그런 희귀한 풍경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공간, 그곳이 바로 나룻배 위였다.



‘희귀한 풍경’ 탄생의 이유

조선 조정(朝廷)은 나룻배를 교통수단으로 적극 활용했다. 조선 후기 법전 <속대전>에는 당시 한강 일대에만 나룻배가 63척이나 있었다고 쓰여 있다. 나룻배는 특히 한 번에 많은 사람을 실어 나르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나룻배에는 보통 15명 안팎이 오를 수 있었다. 다만 크기에 따라 1~2명만 탈 수 있는 초소형, 김홍도의 화폭 속 풍경처럼 열댓 사람에 살찐 동물까지 함께 탈 수 있는 대형 구조도 있었다. 주동력은 노였다. 돛은 없었고, 바닥은 평평했다. 당시 나룻배의 수는 아주 적은 편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필요할 때마다 물살을 가를 수 있을 만큼 넉넉지도 않았다. 누군가를 특별대우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때가 많았다. 그래서 김홍도의 그림 속 모습 같은 장면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원전부터 이어진 물길의 동반자, 나룻배와 사공

나룻배의 역사는 길다. 삼국 시대 당시 위례성을 잃은 백제는 수도를 웅진(오늘날 공주시)으로 옮겼다. 이는 무엇보다도 금강의 쓸모에 주목한 결과라는 학계 내 추정도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크고 작은 나룻배를 활용, 육로 수송과 동시에 조운(漕運) 활동도 할 수 있기에 그곳을 점찍었다는 설이다. 이보다 앞서 기원전 고구려가 수도를 졸본성에서 국내성으로 천도한 일 또한 비슷한 판단에 따른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당시 국내성 일대에는 압록강이 있었다. 고구려 또한 강을 통해 연락과 조운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그렇게 상업 활성화에 세력 확장까지 꾀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삼국 시대에 이어 고려, 조선을 거치며 나룻배는 나룻의 고도화 과정을 거칠 수 있었다. 가령 나룻배 관련 제도가 생겼다. 일종의 교통 정책이 마련된 격이다. 조선 시대 당시 나룻배는 관에서 부리는 관선, 개인이 관리하는 사선으로 나뉘었다. 관선은 비교적 뱃삿이 싹싹했지만 느렸고, 사선은 값을 더 요구하는 대신 빠르게 움직였다는 기록도 있다. 각각 요즘 시대의 버스와 택시 역할을 한 셈이다. 낮보다 밤에 더 많은 대가를 받은 일종의 할증제도, 정기적인 배 수리 권고 등 나룻의 안전 수칙도 갖춰졌다. 사공은 대개 천만금이 도맡았다. 이들에게는 물에 빠진 승객을 구해야 하는 책임 또한 주어졌다. 조선 시대에선 구조를 외면하면 바로 곤장 100대를 맞아야 하는 형벌에 처했다고 한다.



모든 시대, 모든 세대를 품은 나룻배, 역사 속으로

실제로 승객이 물에 빠지는 사고도 있었다. 숙종실록에선 과거 시험 뒤 고향으로 돌아가는 선비 80명이 탄 대형 나룻배가 한강을 건너다 뒤집어졌다는 글을 읽을 수 있다. '배가 뒤집혀 빠졌을 때 애절하게 우짖는 소리가 강 언덕에 퍼졌다. 차마 들을 수 없었다'는 기록은 지금도 가슴을 미어지게 한다. (숙종실록 44년 11월 4일) 대형 사고가 있었다고 한들, 그 시절 나룻배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었다. 그렇기에 나룻배는 기원전 시대부터 1900년대 초까지, 수십 세기 동안 교통의 중요한 한 축으로 위상을 떨칠 수 있었다.

나룻배는 20세기 들어 산업화가 시작되면서부터 급격하게 쇠퇴하기 시작한다. 교각 건설, 철도 도입, 보다 크고 튼튼한 '차세대' 배의 등장 등이 산화를 부추겼다. 오늘날 나룻배는 대부분 관광용으로만 쓰인다. 모든 시대, 모든 세대를 차별 없이 품다가 떠나간 나룻배. 퇴장은 갑작스러웠지만, 역사는 그 존재가 행한 봉사를 오랫동안 기억할 것이다.

교통안전

WHY? HOW?

평소 독자들의 생활 속 교통안전 궁금증을 사연을 통해 풀어보는 코너
정리_ 편집실

최형○ 님

Q. 고속도로 구간단속 구간에서 빨리 달리는 차들, 단속 안 걸리나요?

고속도로에서 100km/h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달리고 있는데, 1차로에서 몇몇 차들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래도 단속에 안 걸리나요?



A 좋은 질문입니다! 구간단속은 평균속도 기준입니다. 구간단속은 단속 시작지점(A지점)과 종료지점(B지점) 사이를 지나온 평균속도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가 100km/h인 구간을 평균 100km/h 이하로만 통과하면 단속에 걸리지 않습니다. 초반에 속도를 냈더라도 후반에 충분히 감속해 평균을 맞추면 단속은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간단속은 단순히 속도 조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른 차들이 빨리 간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 하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일부 운전자들은 내비게이션이나 앱을 통해 단속 지점을 미리 알고 있다가,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급감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습관은 뒤차와의 추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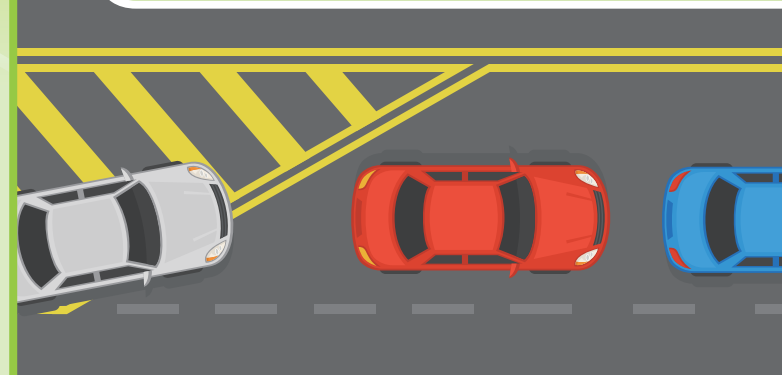


1차로는 추월차로입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일반적인 주행 차로가 아니라 추월용 차로이므로, 장시간 주행은 금지돼 있습니다. 제한속도를 지키고 있어도 1차로에서 계속 주행하면 '지정차로 위반'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성○ 님

Q. 포켓차로에 차가 가득 찼을 때, 어디에 서야 하나요?

운전을 하다 보면 좌회전이나 유턴을 위해 포켓차로로 진입할 때가 있어요. 근데, 대기 차량이 많아 진입하지 못하고 일반 직진 차로에 걸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땐 직진 차량 흐름을 막더라도 포켓차로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뒤쪽 안전지대에 잠시 정차해도 될까요?



A 직진 차로에서 기다리는 것이 맞습니다. 교통법규 상 안전지대는 절대 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포켓차로가 꽉 찼더라도, 뒤편 안전지대 위에 차를 세우는 것은 위법 행위입니다. 이 경우는 조금 답답하더라도 직진 차로에서 포켓차로로 진입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점



일반 도로 위에 설치된 우회전 전용차로 또는 일시 정차용 차로를 지칭하는 용어로, 마치 도로에 '주머니(Pocket)'처럼 돌출되어 별도로 마련된 짧은 구간의 차로를 말합니다.

* 포켓차로가 우회전용 차로일 경우, 직진 차량이 해당 차로를 점유하면 신호위반 또는 교통 방해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을 위한 공간으로, 주행·정차·주차 모두 금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2조)

* 안전지대 진입 시 범칙금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이륜차
4만 원



휴가철, 비행기 탑승 전 이것 체크하셨나요?

보조배터리(드론배터리 포함) 기내 반입 가이드

카툰 JU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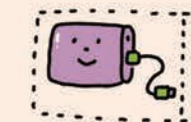
배터리는 충격이나 압력을 받으면 손상될 수 있으며, 선반 위에서 과열될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TS는 365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갑니다.



즐거운 여행을 위해
보조배터리(드론배터리 포함) 단락 방지 조치 방법을 기억해 주세요!



비닐봉투 또는 보호형
파우치에 1개씩 분리하여 보관.



단자에 테이프 부착.



단자 보호용 캡 부착.

그 밖의 기내반입금지물품이 궁금하다면? "항공보안365" www.avsec365.or.kr 또는 QR 접속



‘이런 게 혁신이지!’ 내가 뽑은 생활 속 교통안전 꿀템은?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을 높이는 교통안전 기술이 우리 일상 곳곳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생활 속에서 직접 체감한 똑똑하고 유용한 교통안전 장치나 앱, 스마트 기술은 무엇인지 독자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정리 편집실



LED 바닥신호등

보행 중에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이 많다 보니, 고개 숙인 채로도 신호를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이 시스템이 정말 고마워요. 눈높이를 낮춰 사람을 배려했다는 점에서 ‘이게 진짜 생활 속 혁신이구나’ 싶더라고요.

권민○



차량용 블랙박스 ADAS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단순히 영상만 기록하는 블랙박스를 넘어서, 차선 이탈 경고, 전방 추돌 경고, 보행자 감지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블랙박스예요.

신승○

스쿨존 과속 경고 시스템

LED로 속도를 표시해 주고 경고해 주니, 스쿨존에서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이게 돼요.

이형○



자동차 후측방 충돌경고장치

차선 변경 시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량이 있으면 경고음을 통해 위험을 알려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박태○



차량용 HUD(헤드업디스플레이)

운전 중 시선을 도로에서 떼지 않고도 속도나 내비게이션 정보를 바로 앞 유리에 띄워서 볼 수 있어서 정말 편리했습니다.

한영○



도로 결빙 경고 시스템

도로 노면 온도를 감지해서 결빙 가능성이 있거나 있을 우려가 있을 때,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시스템! 자동차에 타면 결빙 여부나 결빙 우려 여부를 미리 알려주니까 더 조심하면서 운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김지○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하거나 전방에 예상치 못한 보행자가 나타났을 때 제가 브레이크를 밟기도 전에 차가 먼저 경고음을 내며 스스로 속도를 줄이거나 멈춰 서는 경험은 정말 심장이 철렁했지만 사고를 막아줬다는 안도감에 기술의 위대함을 느꼈습니다.

임경○



교통법규 위반 신고 앱

도로 위에서 위험하게 운전하거나 신호를 무시하는 차들을 보고도 그냥 넘어가야 할 때가 많았는데, 이 앱 덕분에 시민이 직접 교통질서를 지킬 수 있게 참여할 수 있어 정말 좋아요.

박천○

교통안전 스마트 알리미 앱

스마트폰 앱만 설치하면 보행자에게 교통사고 위험을 미리 알려줘서 인근에 운행 중인 차량 간 충돌 위험을 미리 감지할 수 있고, 주변을 지나갈 때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킥보드, 보행자 등 차량과 사람 간의 충돌 위험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게 돼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김옥○

TS 매거진 2025년 상반기 만족도 조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TS 매거진을 더 유익하게 만듭니다!



TS 매거진, 잘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기 위해

2025년 상반기 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올해 발간된 TS 매거진 봄호와 여름호를 읽고

느낀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주세요.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50분**을 추첨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참여 방법

상단 QR코드를 찍으면 연결되는 설문지 작성 및 상품 수령을 위한 개인정보 입력

참여 기간

2025.6.16.(월) ~ 2025.07.15.(화)

지금일

2025.7.31.(목)(총 50명 추첨)

당첨자 발표

TS 매거진 여름호 웹진(www.tsmagazine.co.kr)

페달 오조작 방지 시스템(PMSA)

최근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인명사고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이 PMSA 장치의 중요성이 더 커지네요. 많은 차량에 기본 탑재돼 누구나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어요.

염혜○



차량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충돌 위험 시 차량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해 사고를 막아요.

우중○



LED 방향지시등이 달린 자전거 헬멧

이 헬멧은 단순히 머리를 보호해 주는 걸 넘어서, 뒤에서 오는 차량에 내 방향을 알려주는 역할까지 해요. 손을 들지 않아도 헬멧 옆 버튼이나 리모컨으로 깜빡이를 켤 수 있어서 야간 라이딩이나 도로를 달릴 때 훨씬 안전하다는 걸 몸소 느끼고 있어요.

김성○



전기차 충전소 위치 안내 앱

이 앱은 전기차 운전자들에게 가장 가까운 충전소를 실시간으로 안내해 줍니다. 전기차 충전소가 부족한 지역에서 특히 유용하며, 충전소의 실시간 잉여량과 운영 상태도 알려줍니다. 이 앱 덕분에 전기차 운전자가 충전소를 찾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어요.

김도○



보행자 감응 신호 시스템

새벽에 출근할 때 정말 고마운 시스템이죠. 예전에는 사람이 없어도 무조건 신호가 바뀌어서 차들이 불필요하게 기다려야 했는데, 이제는 보행자가 있을 때만 신호가 바뀌어서 교통 흐름이 훨씬 좋아졌어요.

김경○



스마트폰 블랙박스 앱

스마트폰을 블랙박스처럼 사용해 운전 중에 발생하는 사고나 중요한 순간을 자동으로 기록해 줍니다. 별도의 블랙박스를 구입하지 않아도 돼 경제적이고, 언제 어디서든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이지○



후방 추돌 경고 시스템

차가 정차했을 때 후속 차량에 경고를 보내는 시스템 덕분에 추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특히 고속도로에서 유용하게 쓰이더라고요!

신희○



여름호 독자 설문조사 당첨자

스타벅스 기프트콘 30명

권민○ 5877,
김경○ 5817
김도○ 0167
김성○ 2887
김옥○ 4076
김은○ 2662
김재○ 5821
김지○ 4877
김태○ 5454
남 ○ 6380
박정○ 1157
박천○ 2354
박태○ 1153
신승○ 3124
신희○ 3630
염혜○ 8772
우중○ 0375
유의○ 6602
유해○ 8824
이유○ 4218
이은○ 8867
이지○ 2322
이형○ 1225
임경○ 1625
장두○ 4958
장혜○ 1236
정윤○ 3512
조영○ 9054
한영○ 7821
홍영○ 6457

*이름 두 글자와 휴대전화 뒤 네 자리로 표시
상품 지급일: 6월 30일(월)

*문의 사항은 ts_magazine@naver.com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TS 매거진과 함께하는 초성 퀴즈 이벤트



퀴즈 이벤트 참여를 원하시면
QR코드를 스캔해 주세요

TS 매거진을 사랑해 주시는 독자 여러분을 위해 퀴즈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초성 퀴즈에 도전해 보세요!

문제를 읽고 네모 칸에 들어 있는 초성을 참고해 정답을 맞춰주시면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더욱 유익한 TS 매거진을 만들기 위한 독자 이벤트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Q1

대한민국 최초로 지정받은 TS ○○○○지원센터는 교통수단과 첨단 기술을
결합해 이동 혁신과 활성화를 선도합니다. ○○○○는 무엇일까요?

Hint 12~15p '사사이다'



Q2

국내 최초로 친환경자동차 전용 검사진로를 설치한 곳은 어디일까요?

Hint 42~47p 'TS 커피 충전소'



참여 방법

상단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연결되는
구글폼에 퀴즈 정답(2개)과 상품 수령을
위한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참여 기간

2025년 6월 30일(월)까지

지급일

2025년 7월 15일(화)
(총 10명 추첨)

당첨자 발표

여름호 웹진

당첨 선물

정답자 추첨을 통해 선물 지급
(퀴즈: 스타벅스 커피 모바일 상품권)

*문의 사항은 ts_magazine@naver.com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지난호 당첨자

*당첨자 휴대폰 번호 뒤 네 자리로 표기

김○○ 5892 김○○ 3978 김○○ 1972 김○○ 9950 서○○ 7500

서○○ 7562 소○○ 7135 안○○ 9115 윤○○ 9322 정○○ 7116



6월 30일까지 TS 매거진 여름호 독자 후기를
남겨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커피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매거진 구독/취소,
주소 변경 신청
T. 02-2090-6752

비 오면 무조건 감속

오늘도 무사GO